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CORONAVIRUS | METRO | SPORTS | BUSINESS | TECHNOLOGY | OPINION | SPOTLIGHT | RHODE ISLAND | POLITICS | CLIMATE

'We can't keep up with our orders': Community ties remain for a Roxbury sneaker store that shifted business online



보스톤글로브는 지난해 5월 팬데믹에 문을 닫게된 김섭 뉴햄프셔한인회 고문의 알파앤오메가 가게와 흑인 커뮤니티간 각별했던 관계를 보도했다. 보스톤글로브도도 자료화면 갈무리

흑인 동네서 사랑받았던 운동화가게 아저씨, 김섭씨 별세

보스톤글로브, 1년전 흑인 커뮤니티에서 사랑받던 김씨 대서특필
보스톤 한인사회와 흑인사회의 끈끈한 유대관계의 주춧돌 역할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었다” 락스베리 거 김씨 아저씨는 보스톤, 락스베리에 딱 맞는 사람이었다. 그는 우리에게 아주 친근했고, 김섭 고문의 운동화가게, 알파와오메가는

성스러운 땅같은 것이었다” 고 회상했다. 그곳은 그의 어머니가 그가 어린 아이였을 때 운동화를 사주러 데려갔던 장소였다.

1969년, 김섭 뉴햄프셔 한인회 전 고문은 얼마 되지 않은 돈을 들고 미국으로 건너와 십 년만에 락스베리 더들리스퀘어(지금은 누비 안스퀘어)에 운동화가게 ▶▶4면으로 계속

과기협, 젊은 과학기술전문가 양성 위한 경력개발워크숍 개최

8월 워싱턴 DC서 경력개발, 승진 위한 강의와 훈련 제공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미한 인과학기술자협회(KSEA, 회장 박병규)가 미국 내 과학기술분야에 종사하는 대학원생들과 젊은 연구자들의 경력개발을 위해 “과학기술전문인 경력개발 워크숍” 을 개최한다. 워크숍은 8월 16-17일 양일 간 워싱턴 DC 인근의 버지니아주 알링턴 소재 Hyatt Regency Crystal City 에서 개최된다. 워크숍에는 과학기술 전공 박사후 과정 혹은 졸업을 앞둔 박사과정, 조교수, 초급경력 연구원 등 젊은 한인 과학기술자들이 참가한다.

SEED2022는 8월 17일-20일 같은 장소에서 개최되는 한.미 과학기술학술대회 (UKC 2022, 대회장 김영기 차기회장)와 연계되어 UKC 2022에 참석한 다수의 대학 총장, 대기업 대표, 출연연 원장들과의 네트워킹 행사도 마련될 예정이다.

KSEA는 미국에 거주하 ▶▶6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MOVEMENT MORTGAGE

인생 최대의 투자는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주택융자/재융자, 주택연금/투자 전문융자 등 다양한 상황에 맞춘 컨설팅
최적의 이자율로 함께 길을 찾아드리겠습니다.

Call **MIKE LEE** today (978) 314-8818
mike.m.lee@movement.com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Korea licensed
Multi -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bostonpremierrealty.com



재외동포재단, 2022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 모국연수(오프라인) 참가자 모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지난 2년간 시행하지 못했던 차세대 재외동포의 모국 방문 사업인 '2022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 모국연수' (오프라인) 참가자를 4월 7일부터 5월 11일까지 모집한다.

청소년(만14세~18세)은 7월 14일~19일, 7월 28일~8월 2일, '23년 1월 12일~17일 각 5박 6일간 1,500명을 대상으로 세 차례, 대학생(만18세~25세)은 7월 20일~27일, 8월 3일~10일 각 7박 8일간 500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 서울과 지방 도시에서 각각 실시될 예정이다.

코로나 이후 2년여 만에 치르는 행사인 만큼 올해부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전국 국립청소년수련 시설들을 활용, 철저한 방역과 안전한 연수환경

제공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모국연수 최초로 동계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그간 하계연수에 참가가 어려웠던 지역의 차세대에게도 모국 방문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이를 통해 계절별 다양한 모국의 모습과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다.

김성곤 이사장은 "한민족 정체성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흥익인간 정신을 몸소 체득하여, 세계시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코리아인으로 성장하는 디딤돌이 될 이번 모국연수프로그램에 국내외 청소년, 대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2022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 온라인연수도 3,000명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추후 일정 확정시 참가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bostonkorean@hotmail.com



작년 6월 북부보스톤한인교회에서 열린 총회 모습

한인회 총회 4월 20일 수요일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매사추세츠 한인회는 4월 20일 수요일 오전 11시 30분 총회를 노스앤도버 소재 다문화선교회 친교실에서 개최한다.

한인회는 지난 3월 2일 총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이를 한차례 연기했다.

총회에서 한인회는 2021년 사업 보고 및 재무보고 그리고 2022

년 한인회 사업에 대해 보고할 계획이다. 또한 한인회칙 일부조항 개정안도 인준할 계획이다

한인회 총회
일시 : 2022년 4월 20일 (수요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 다문화교회 친교실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옆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세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정선경 Sun Kyung Jung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김수정 Soojung Kim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락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재휴일제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서울설렁탕
겨울 특선메뉴

사골 떡만두국

진한 사골 국물에 정성으로 빚은 만두가 들어간 든든한 식사로
추운 겨울을 포근하게 보내세요

Take out Available
포장가능

서울설렁탕
SEOUL SOULONGTANG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MA 02134 Tel: 617-505-6771

형사법
상법/회사법
민사법
부동산/클로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프리미어리얼티 렉싱턴, 헤이들리에 사무실 확장

부동산은 물론 대출, 변호사, 구매후 수리, 빌딩 관리까지 종합적으로 원스탑 서비스 제공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부동산 구매 및 투자관련 원스탑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는 프리미엄리얼티가 올스턴에 이어 렉싱턴 및 헤이들리에 각각 사무실을 개소하며 계속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렉싱턴 오피스는 올해 1월 30일 개소했다. 프리미엄 나원태 대표는 “회사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렉싱턴 지역과 인근 지역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거점이 필요해 계획하고 있었다.” 고 말하고 “한국 에이전트뿐만 아니라 아시아인 그리고 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의 에이전트들이 참여해 운영하고 있다” 고 밝혔다.

렉싱턴 오피스 신보경 매니저 (508-361-6064)는 “한인들은 물론 2세 등 한국어가 편하지 않는 분들 모두가 이용하실 수 있다” 고 말하고 “부동산 관련해 모기지, 법률, 구매 후 수리 서비스까지 다양한 기관과 연결되어 있어 어떤 상황이라도 도와드릴 수 있는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 말했다.

렉싱턴 오피스 손민정 매니저

(773-968-2651)는 “어떠한 케이스라도 거기에 맞게 서비스를 해드릴 것이다. 개인적인 상황이 모두 다르므로 상황에 맞게 서비스를 연결해 줄 수 있다. 렉싱턴 사무실에 약 7-8명이 일하고 있으며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최근들어 그레이터 보스톤 지역의 부동산 매물이 극히 줄어들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보스톤 서부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에 따라 프리미엄리얼티헤이들리 오피스도 각광을 받고 있다. 헤이들리 오피스는 매사추세츠 서부 지역과 커네티컷 지역을 커버한다.

헤이들리 오피스의 캐시 송 매니저는 “지금껏 웨스턴 매사추세츠 지역에 한인 에이전트가 없었던 관계로 많은 한인들이 미국 에이전트들과 일하다 지쳐있는 분들이 많았다. 프리미엄이 진출하면서 많은 한인들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고 밝혔다.

특히 최근 매사추세츠 서쪽에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이 헤이들리 오피스를 많이 찾는다. 송 매니저는 “고객들이 어떻게 믿고 맡겨야 할지 모르는데 프리미엄 헤이들리 사무소는 레지덴셜, 커머셜 구입은 물론 매니지먼트, 투자서비스까지 책임지고 해드린다” 고 말했다.



29일 프리미엄리얼티 렉싱턴 오피스에서 인터뷰 후 소속 매니저들이 함께 했다. 헤이들리 매니저 캐시송씨, 렉싱턴 매니저 손민정, 신보경씨 (사진 왼쪽부터)

송 매니저는 “보스톤이 비싼 경우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웨스턴 매사추시츠 지역” 이라며 특히 웨스턴 매사추시츠 지역은 CAP 즉 수익율이 좋아서 하나만 사고 그만하시는 분이 없다.” 고 말했다. 주택가격은 보스톤 지역의 3분의 1 수준이지만 렌트비는 높아 많은 투자 고객들이 호시탐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곳이다. 한편, 프리미엄리얼티 나원태 대표를 비롯한 모든 매니저들은 현재 주택동향에 대해 “매물이 없고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 고 표현했다. 특히 모기지 이자율이 5%대를 넘어섰음에도 시장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나원태 대표는 “보스톤은 다른 지역과 특성이 달라 산업, 학교 등의 이유로 인구 유입이 많아 부동산 시장이 꺼지지 않는다” 고 말했다. 심지어 부동산 시장이 위축이 된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떨어

지지 않는 것이 특성이라고 지적했다.

손민정 매니저는 “2년 전에 가격이 떨어질 것을 기다리며 망설이다 집값이 20-30% 올랐다. 2년 전에 가능했던 것들이 상황이 훨씬 악화됐다. 자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20% 고칠 것을 감안하고 구입한다” 고 말했다.

나원태 대표는 “당분간, 적어도 올해 말 내년초까지는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다. 렌트가 급격히 오르기 시작했다. 집값이 떨어질 수 없다” 고 밝혔다.

Shoe City Family Dental



(원장: 김동원)

코로나로 변한 세상,
이제 당신의 건강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최고의 의료 장비와
최고의 의사가
최고로 건강한 치아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산 자가진단 코로나 테스트 키트 판매 합니다. 개당 \$50”

103 Merrimack St
Haverhill, MA 01830

Phone : 978.971.0060
Fax : 978.971.0061

뉴햄프셔한인회 김섭 전고문 별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햄프셔한인회 김섭 고문이 3월 22일 화요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80세.



고뉴햄프셔한인회 김섭 고문

장례는 4월 2일 오후 1시에 멧두은에 위치한 카타우델라 장례식장

(Cataudella Funeral Home)에서 김철진목사의 인도로 진행됐다. 사위인 샘최, 박선우 뉴햄프셔한인회 회장, 이기환 보스톤중앙대학교 동문회장이 추모사를 전했다.

장례식에는 박선우 뉴햄프셔한인회 회장, 조은경 전한인회장의 수많은 조문객이 참여하여 고인을 추모하였다. 이후 앤도버 소재 웨스트패리시가든(West Parish Garden Cemetery)에 안장됐다.

고 김섭 고문은 1942년 12월4일 서울에서 출생, 양정고등학교와 중앙대학교 사회사업학과를 졸업하였다. 육군중위로 전역후 1969년 도미했다. 뉴햄프셔한인회 창립멤버이며 24년간 고문으로 활동했다.

40여년을 띵스베리에서 알파&오메가사를 운영하며 현지 많은 기부와 봉사로 지역사회와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해왔다. 특히 지난해 5월 보스톤글로브의 칼럼니스트 이본 아브라함은 누비안스퀘어(구 더들리스퀘어)에서 40년간 알파와오메가처럼 지역사회 생활의 한 부분으로 사랑받은 김섭 고문의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전하기도 했다.

민주평통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1994년 김영삼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고, 2002년 재외유공자로 선정되어 당시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 표창을 수여 받았다.

미망인 한윤경 권사와 슬하에 1남 2녀, 6명의 손녀가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흑인 동네서 사랑받았던 운동화가게 아저씨, 김섭씨 별세

▶▶ 1면에 이어서

를 차렸다. 아디다스의 탑텐(Top ten) 운동화를 종교처럼 떠 받들던 흑인 커뮤니티에서 운동화가게는 거의 지역사회의 메카였다는 게 보스톤 글로브 칼럼니스트 이본 아브라함의 이야기다.

맨손으로 미국으로 건너 와 10년 내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는 일, 흘린 땀과 열정은 같은 이민자로서 충분히 짐작하고 남는다. 사업의 시작 이후 끝을 모르는 것처럼 그는 띵스베리 흑인 커뮤니티에 뿌리를 내렸다.

대불황, 인터넷 시대, 저가 운동화 체인스토어 등의 비와 바람이 몰아쳤지만 고목처럼 그곳을 지켰다. 그렇게 40년, 매일 문을 열고 띵스베리 커뮤니티의 고객들을 반겼다. 띵스베리의 대명사가 됐고 커뮤니티의 한 축이었다. 보스톤의 흑인 커뮤니티와 한인들의 사이가 다른 도시들과 달리 좋은 것은 김씨와 같은 띵스베리 한인 상인들의 숨은 공로다.

팬데믹은 김섭씨에게 시련을 안겼다. 띵스베리로 40여년간 매일 출근했던 자신의 가게의 문을 닫아야만 했다. 처음엔 자신의 가게만은 해당이 안될 줄 알았다. 매일 가게 문을 열었고, 띵스베리 이웃들은 김섭씨가 다시 문을 열었

다며 자녀들에게 전화로 알렸다. 식구들은 차키를 감춰지만 스페어 키를 찾아 출근했다. 결국 경찰의 설득을 듣고 서야 문을 단았다.

또 하나의 시련은 병환이었다. 2020년 6월 크게 앓았던 그는 여름께 암을 판정 받았다. 수술과 치료 등을 겪어야 했던 김씨 가족은 결국은 비즈니스를 접게 됐다.

팬데믹 동안 어려움을 겪는 띵스베리 커뮤니티에 1천달러의 운동화와 수백벌의 옷을 기부했다. 그럼에도 창고에서 모든 물건을 옮기는 데는 26피트의 트럭이 필요했다. 거기에는 각종 빈티지 운동화 보물들도 있었으며 보스톤을 주제로 한 아디다스탑텐 리미티드 에디션도 있었다.

김씨의 딸 켈씨는 인터넷으로 판매를 시작했고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주문이 쇄도했다. 많은 옛 고객들이 멀리 애틀란타에서도 다시 찾아 들었다. 많은 고객들은 페이스북에 알파와오메가에서 있었던 자신들의 추억을 남기기도 했다.

로드니 잭슨 씨는 “가슴이 아프다. 그 상점은 추억이 담겨있다. 돌아가신 엄마랑 같이 지냈던 문을 지나 같은 타일 바닥을 밟고 이미 세상을 떠난 내친

구와 함께 만졌던 카운터다. (이제는 사라져) 많은 사람들을 슬프게 한다” 고 말했다.

김섭씨는 1년전 글로브 칼럼니스트 이본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아직도 (비즈니스를 접은 것이) 섭섭하다. 더들리스퀘어를 사랑했다. 죽을 때까지 그곳에 있고 싶었다. 모든 나의 고객들이 그립다” 고 회상했다.

팬데믹이 끝나지 않은 지난 3월 29일 흑인 동네의 아이들 추억의 한 부분으로 사랑받았던 김섭씨는 세상을 떠났다. 띵스베리 운동화가게 사장님, 늘 흑인 커뮤니티와 함께 했던 한인, 따뜻한 눈빛을 가진 김섭 뉴햄프셔 한인회 고문이었다.

알파와오메가는 띵스베리에서 어린 시절 보냈던 흑인들의 추억 속에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다.

(편집자 주)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신문이 1년 전의 소식을 다시 들춰내 보도하는 것은 고통이었습니다. 특히 고인의 부음을 접한 후에 말입니다. 한인소식을 전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보도 ‘타이밍’ 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고인의 임종 후에도 알려야 할 소식이기에 보스톤글로브의 칼럼을 바탕으로 내용을 독자들에게 전합니다. 머리 숙여 고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스티브 배 변호사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이민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7일 24시간 변호사와
상담 가능합니다

Steve Bae
이민법 전문 변호사

781.457.8846
steve@attorneystevebae.com
attorneystevebae.com

48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마음대로
골라본다
\$24⁹⁹

조정된 상품 가격 (5월 1일부터, 무료영화는 6월부터 편당 1불로 변경)		
Plus 상품 KBS, MBC, SBS, EBS, YOUTUBE \$24⁹⁹	Premium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중편, YOUTUBE \$34⁹⁹	VIP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중편, 영화/성인, YOUTUBE \$39⁹⁹
*전상품 1년 약정		

NOW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총 13개 Live방송중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연말뉴스TV MBN JTBC / JTBC골프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노동부 실업급여 과다지급 일괄 면제 청구 '인쇄 거부'

노동부, 2021년 3월 이전 실업급여 과다지급 부분에서만 일괄면제 가능... 나머지는 사안별 판단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 노동부가 20억달러에 달하는 팬데믹 기간 중 실업급여 과다지급분을 일괄 면제해 달라는 MA 주정부의 요청을 거절했다. 다만 2021년 3월 이전 실업급여 초과지급분에 대해서는 탕감을 허용했다.

노동부는 일괄 면제 대신 주정부에게 부분적인 면제만을 허용해 복잡한 분야별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따라서 주 실업지원부는 가장 많이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들을 파악해야 한다.

보스톤글로브에 따르면 매사추세츠는 연방 프로그램 혜택자들 중 과다지급자들에게 대해 일괄적인 면제를 요청한 유일한 주였다.

노동부는 4월 1일 매사추세츠 주정부의 요청을 연방법에 의거해 승인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마이클 이븐모어 실업보험현대화정책 부소장은 과거 근로경력 증명서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팬데믹 실업급여 과다지급분에 대해서만 이를 면제해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괄적인 탕감은 지난 2021년 3월 23일 이전에 받은 실업급여에만 적용된다. 이 날짜가 바로 주정부가 실업급여 수령자

들에게 과거 직장 경력을 제출하도록 통보한 날이다. 이날 이후의 초과지급 실업급여도 면제가 되지만 실업지원부(DUA)가 각 건을 하나씩 들여다 본 후 판단하게 된다.

과거 근무경력 증명 제출은 연방 의회가 PUA가 실시된 후 추가적으로 보충한 조치로 매사추세츠 실업급여 지급 자격 상실의 가장 일반적인 이유였다.

매사추세츠의 의도적이지 않은 실업급여 초과 수령에 대한 일괄적인 탕감 시도는 사실상 어려운 시도였다. 그러나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노동부 장관이 전 보스톤 시장이었던 것을 감안해 일괄의 희망을 가졌었다.

그러나 의회는 노동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을 제한해 놓은 것이다. 의회는 각 주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했을 경우에만 이를 탕감할 수 있도록 했다. 수령자의 의도적인 잘못이 아닐 것과 초과지급된 돈을 다시 수령하는 것이 평등과 양심(equity and good conscience)에 어긋나는 일이 될 때 이 두가지 조건이다. 문제는 평등과 양심의 의미가 전체적인 공정함을 고려해 각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이라는 말랑말랑한 개념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노동부는 연방실업급여 수령자들이 과거

근무경력 증명을 요청하기 전까지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다고 판단했고 이에 대해 다시 돈을 요청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같은 요청 이후에 지불된 실업급여 초과분을 지급받고 주정부의 요청에 답하지 않는 경우는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베이커 행정부는 2021년 3월 이전까지의 탕감 허용에 고마움을 표했다. 주정부는 노동부의 판단을 검토한 후 실업급여 초과지급분 탕감 관련한 계획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지원부는 약 23억3천만달러를 초과지급했다. 이는 주정부의 실업급여분 3억7천5백만달러가 포함된 금액이다. 주정부는 주정부가 지급한 실업급여청구에 대한 초과지급은 일괄 면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많은 실업급여 초과 수령자들은 현재 자신들의 새로운 직장으로 출근하고 있으며 더 이상 고용지원부의 어카운트를 점검하지 않는다. 특히 고용지원부의 과거경력 납부통보 등의 내용은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혼란스러웠다. 또한 실업지원부와 통화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이들은 급여를 모두 사용한 상태이며 이제 주정부는 이 돈을 돌려달라고 하고 있는 상태가 됐다.

현재 주정부는 총 2만9천건의 면제 요청서를 받았으며 이중 13,700건은 연방 실업급여 분이다. 지원부의 보고에 따르면 55,400명의 실업급여 초과수령자들이 있으며 약 7천 800여명은 이중 전액 또는 부분적으로 이를 다시 주정부에 갚았다.

현재 돌려받은 돈은 1억8천3백만 달러는 연방정부, 3천9백만 달러는 주정부의 실업급여 분이다.

hsb@bostonkorea.com



피터 김 부동산

주택, 콘도 및 상업 건물 전문

MA 전지역 (32개 지점 MA 전지역에 위치)



Peter Kim REALTOR®
508.904.4735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Commonwealth Real Estate



Direct line: 508.530.0125
Mobile: 508.904.4735 (Text for Urgent Matters)
www.PeterKimRealtor.com



면역력 재충전

120년의 철학

국내산 6년근 만을 고집하며,
100% 계약 재배한 인삼 만을 사용합니다.



홍삼정 240g
1개 구입시 30g 증정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FedEx 로 주문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하버드대 '좁은문' 합격율 3.19% 역대 최저

SAT 미반영에 지원자 늘어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미국 명문 사학 하버드대 입학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 성적을 요구하지 않는 입학 사정 방식 도입으로 지원자가 늘면서 합격률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2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올해 하버드대 합격률은 3.2%로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하버드대는 내년도 신입생 모집에 6만1천명 이상 지원했고, 이 중 1천954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합격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54.2%로 역대 최고였다.

올해 전체 지원자는 작년보다 7% 이상 늘었다. 작년 합격률은 3.4%였다.

합격률 하락은 입학 사정 방식 변경과 관련이 있다.

하버드대는 지난해 12월 향후 4년간 대학입학자격시험(SAT)과 대학입학학력고사(ACT) 점수를 신입생 선발 과정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하자 하버드대는 학생들이 시험을 보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시험 성적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고, 이 같은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원자들은 시험 점수 대신 고등학교 각종 기록 등 자신의 자질이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고 대학 측은 설명했다.

코로나19 여파로 하버드대 외에도 시험 점수를 요구하지 않는 미국 대학들이 늘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재정이 튼튼한 '부자 학교'인 하버드는 학자금 지원도 늘렸다. 무상 교육을 위한 연간 소득 한도를 기존 6만5천달러에서 7만5천달러로 높였다.

double@yna.co.kr



지난 해 12월 LA 에서 개최된 SEED 2021 워크숍 참석자들

과기협, 젊은 과학기술전문가 양성 위한 경력개발워크숍 개최

▶▶ 1면에 이어서

는 젊은 한인과학기술자들에게 경력개발을 위한 연구비취득 방안과 취업 및 승진 요령 등 유용한 정보와 경력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캘리포니아주립대 어바인 캠퍼스의 원윤진 교수가 좌장을 맡고 있는 SEED 2022 워크숍의 주제는 "Building a Sustainable and Successful Career and Life" 이며 기조연설자로는 세계적 로봇공학 석학인 김상배 MIT 기계공학과 교수, 이해경 존스홉킨스대 신경과학과 교수, 루이지애나 주립대 컴퓨터과 학공학 교수인 박승종 교수가 강연하며 미국내 중견 과학기술자 10명 이상이 연사와 멘토로 참여한다.

프로그램으로는 • 미국 과학기술계에서 효과적인 연구 발표와 홍보방법 • 학계와 연구기관, 기업체, 공공서비스 채용 정보 공유 및 동료 과학기술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킹 방법 • 박사후 과정의 연구원들

과 조교수급 참가자들을 위한 그랜트 제안서 작성 방안 • 학계 경력을 위한 워크숍 (채용 신청/종신직 취득/승진/수행 평가 준비 방안, 효과적인 프리젠테이션 방안) 등이 포함된다. KSEA는 4월 30일 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은 후 신청자들의 이력서와 구비서류 등을 평가해 70-80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워크숍의 성공적인 진행과 젊은 과학기술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여행경비 일부와 숙박비를 보조할 계획이다.

재미과기협의 SEED 워크숍은 젊은한인과학기술자들에게 연구비취득방안과취업및승진요령등유용한 정보와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이는 지난 2013년 시작된 이후 해를 거듭할수록 질적, 양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참가자들이 SEED 워크숍 참석 이후 정부 기관으로부터 그랜트를 받거나 학계 및 연구기관, 기업체,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경력을 쌓고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등 두각을 나타내면서 SEED 워크숍은 참가자들의 경력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터닝 포인트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KSEA는 SEED 2022를 통해 미주 지역의 젊은 한인과학기술 전문가들이 경력개발의 소중한 기회를 얻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1971년 워싱턴 DC에서 한인 유학생 69명으로 창설된 재미과기협은 50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한인 1세 뿐아니라, 1.5세, 2세 한인과학기술자들이 대거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세대의 폭을 넓혀가고 있으며 국제 학술대회와 다양한 R&D 사업, 차세대 사업 등을 통해 과학기술발전과 한-미간 과학기술협력의 교량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행사 등록:

<http://seed.ksea.org>

▶ 행사 문의: 2022seedworkshop@gmail.com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중은치과, 중은치아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내년 세계한상대회, 미국 오렌지 카운티에서 열린다

6일 '운영위원회'에서 투표통해 선정 내년 10월, 처음으로 해외에서 열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2023년 제21차 세계한상대회'가 미국 오렌지카운티에서 열린다. 내년도 21년째를 맞는 세계한상대회는 역대 처음으로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개최된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은 4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제40차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세계한상대회 개최지로 미국 오렌지카운티를 최종 확정하였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한인 경제단체장과 역대 대회장 등 50여명의 운영위원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였으며, 각 결선 후보지의 주요 개최 요건을 검토한 후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미국 오렌지카운티를 선정했다. 이번 해외 개최 신청지로는 미주 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소속 4개 지회(뉴욕, 애틀랜타, 댈러스, 오렌지카운티)가 경합을 벌였으며, 재단 현장 실사 결과 댈러스와 오렌지카운티가 결선 후보에 올랐다.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오렌지카운티는 미주에서 한인 역사가 오래되고, 한인 상권이 발달하는 등 우수한 산업 인프라를 갖춘 곳으로 대회 개최지로 손색이 없다.

현지 한상의 적극적 협조와 지원을 바탕으로 해외 최초 세계한상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이어서 6일 오후에는 리딩CEO포럼 회의, 7일에는 국회 의원회관 강당에서 '국회 세계한인경제포럼'과 재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리딩CEO 등 세미나 참석자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속성장 방안 및 세계한인경제인의 역할'을 주제로 토의한다. 세계한상대회는 재외동포 경제인과 국내 기업인이 참석하는 한민족 최대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행사로 올해 '제20차 세계한상대회'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울산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bostonkorean@hotmail.com



미국 2월 집값 1년전보다 20% 상승... 12개월 연속 두자릿수 오름세

(서울 = 헤럴드경제) 최한승 기자 = 부동산 정보 업체 코어로직의 주택가격지수(HPI)에 따르면 지난 2월 미국의 주택 가격이 전년동기 대비 20% 상승했다. 이로써 미국의 주택가격은 12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두자릿수 이상의 상승폭을 나타냈다. 코어로직의 프랭크 노세프 수석 경제학자는 "공급이 수요를 맞추지 못하면서 주택 가격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라며 "지금과 같은 주택 가격 상승세에 금리까지 오른다면 바이어의 구매력을 낮아져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주택 가격 상승폭을 제한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플로리다가 29.1%로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애리조나(28.6%)와 네바다(25.8%), 유타(25.5%), 테네시(25.4%)등이 그 뒤를 이었다. 노스캐롤라이나, 몬태나, 조지아, 그리고 워싱턴 등도 상승폭 20%를 넘겼다.

도시별로는 피닉스가 30.4%를 시작으로 라스베이거스(26.5%), 샌디에고(25.2%), 덴버(20.4%)가 20%이상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마이애미(19.5%)와 휴스턴(16.4%) 그리고 LA(15.1%)도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지나친 가격 상승에 따라 버블이 우려되는 지역도 증가하고 있다. 코어로직은 최근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애리조나 지역을 집값 하락이 유력한 지역으로 분류했다.레이크 하바스와 프레스콧 등 2곳의 집값 하락 가능성은 최소 50%, 최대 75% 이상으로 전망됐다. 코네티컷의 브릿지포드와 하트포드(각각 25~50%)와 호놀룰루(25~50%) 등도 집값 하락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꼽혔다. 한편 코어로직은 2월 HPI 발표를 통해 올해 3월 주택 가격 상승폭이 전월 대비 0.6%로 낮아지고 앞으로 1년간의 주택 가격도 전년 대비 5% 인상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전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지시에서 민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전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전 미국 육군 심판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Michelle Han CPA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행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1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 Ste301 Cambridge MA 02140
Woburn: 76 Winn St. 1F Woburn MA 01801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항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프랭클린파크 동물원, 고릴라 신축사 새롭게 개장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프랭클린파크 동물원의 최고 인기 동물인 고릴라 전시장소가 새로운 3만6천 큐빅피트의 야외 고릴라그로브로 바뀌어 4월 12일부터 선보인다.

기존의 실내 전시장소는 고릴라의 인기에도 불구하고 관람객들이 고릴라를 관찰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적이어서 제대로 관람을 즐기기가 어려웠다.

고릴라그로브는 과거 실내에 있었던 답답하고 좁은 전시장소에서 벗어나 훨씬 더 넓은 야외공간에 꾸며졌으며 건축물의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 중앙에는 폭포가 구비되어 있고 실제 나무와 인조 나무로 꾸며져 있다.

이 고릴라 그로브에서는 리틀조

(Little Joe), 기툼비(Kitombe)와 그의 짝인 키키(Kiki), 그리고 3마리의 캄비리(Kambiri), 아지지(Azize), 파블로(Pablo), 총 6마리가 거주하게 된다.

새로운 축사는 무명 기부자의 기부로 9백만달러가 넘는 금액을 들여 건축했다. 프랭클린파크 동물원 측은 그동안 고릴라 신축사는 숙원사업 중의 하나였다고 밝혔다.

당초 신축사인 고릴라그로브는 지난해 여름 개장 예정이었으나 팬데믹과 공급망 차질 문제로 올해로 늦춰졌다. 완성까지는 3년이 소요됐다.

프랭클린파크 동물원과 스톤햄 동물원을 동시에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 주뉴잉글랜드(Zoo New England)의 회장이자 대표인 존 라인한

은 “고릴라 전시는 가장 인기가 높았다”고 말하고 “이제야 (결맞는) 최고의 야외 전시장을 갖게 됐다. 사람들은 이를 보면 좋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랭클린파크 동물원과 스톤햄 동물원은 최근 방문자들이 급격히 늘었다. 2020년 방문자들은 60%가 늘었고 지난해는 무려 1백10만명의 방문자를 기록했다. 1백만 방문자를 넘긴 것은 처음이었다.

스톤햄 동물원은 매년 크리스마스 라이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프랭클린파크 동물원은 보스톤라이트 행사를 7월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 무려 20만명의 방문자가 프랭클린을 방문했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시 최고연봉 수령 공무원은 경찰 또는 소방관

시 공무원 중 2천50백명이 15만불 이상 받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시에서 최고의 연봉을 받는 공무원은 회사로 치면 CEO인 시장이 아니었다. 미셸 우 시장과 시 의회 의원들의 연봉은 실제적으로 많지 않다.

보스톤 시가 웹사이트에 공표한 보스톤시 공무원 연봉내역자료에 따르면 250명의 고위 소득 공무원은 보스톤 학교 교육감인 브렌다 캐설리어스와 시 인스펙터 케이스 배리를 제외하고 모두가 경찰 또는 소방관이었다.

2021년 자료에 따르면 보스톤

시 공무원의 총 수는 2만2천명, 평균 급여는 \$78,000이었다.

연봉순의 탑 4는 모두 경찰이었다. 이중 2명은 지난 2000년대 초반 부당해고 당한 2명의 경찰들로 두명 모두 1백만 달러가 넘었다.

보스톤 시장은 2021년 11월부터 \$207,000을 받게 되며 시의원은 \$103,500을 받는다.

624명이 2021년 보스톤 시장의 2022년 연봉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았으며 대부분은 경찰이었다.

hsb@bostonkorea.com

신신마트 당일배송

신신마트 당일배송
신신마트 당일배송
신신마트 당일배송

배달 서비스

EXPRESS DELIVERY

각종 고기와 반찬, 쌀, 라면, 야채, 과자 뿐만 아니라 신선한 생선회(Mr. Sushi) 등을 12시 이전에 주문하시면 안전하게 당일 배송해 드립니다.
\$100불 이상 / 배송비 10불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은 Free Delivery 해드립니다.


가격과 품질에 정직합니다
정성들여 만든 신신 스페셜

- 얼큰한 해물 짬뽕국물 (\$7.99)
- 순두부 (\$7.99)
- 육개장 (\$9.99)
- 신신한 홈메이드 신신만두 (\$25.00) (고기만두, 김치만두)

ALL 유기농 늘푸른 농장

- 한국포도 \$19.99/pack, \$36.00/box
- 메주콩, 검정콩 \$29.99/5LB
- 배즙, 포도즙, 대추즙 \$29.99/25packs
- 마른대추 \$29.99/1bag
- 고춧가루 \$69.99/3.8LB

요가송의 5분요가

유튜브 검색창에  **요가 읽어주는 여자 hayeon**

하루 10분 가벼워지고 날씬해지는 운동과 명상 루틴

몸과 마음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경험으로 다들 아시죠? 생각과 고민이 많고 스트레스 받는 날에는 머리도 아프고 몸도 쉽게 지치고, 속도 불편하고... 반면 기분이 좋은 날에는 몸도 한결 가볍고 에너지도 넘치고 말이죠. 매일 조금씩 달라지는 나의 컨디션을 조절하고 면역력을 키우려면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동시에 잘 살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어의 힘을 키우는 복근운동과 스트레스 지수를 낮춰주는 명상을 함께 진행하는 일명, '코어+명상 타바타' 수련을 소개해드립니다. 하루 중 언제 하셔도 상관없지만 아침 공복운동과 충분한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해드려요.

아래 영상을 찾아 보면서 따라하면 더 쉬워요!!

유튜브 검색창에서 '요가 읽어주는 여자 hayeon' 을 검색한 후, 최근 영상에서 코어 명상 타바타 편을 찾아 꼭 따라해보세요.

1. 버드독 자세

1단계 영상을 따라 워업이 끝난 후, 한다리 와 반대쪽 팔을 뻗어 중심을 잡아줍니다.

2단계 복부를 강하게 등쪽으로 끌어당겨 1-2초 홀딩한 후, 손과 발을 내리고 반대쪽도 해



주세요

3단계 1분동안 쉬지 않고 진행하며 코어의 힘을 길러줍니다.

주의!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날숨과 들숨의 호흡길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2. 1분 명상

1단계 앞의 복근운동이 끝나면 아기자세 혹은 앉은 자세에서 휴식하며 눈을 감고 호흡합니다.

2단계 목과 어깨의 긴장감을 풀고 들숨과 날숨의 변화를 지켜봅니다.

3단계 빨라졌던 호흡을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 길고 깊게 진행합니다.

주의!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뒤에 벽이 있다고 생각하며 척추를 곧게 펴줍니다.



3. 엘보 플랭크

1단계 명상이 끝나면 바로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플랭크 자세를 취합니다.

2단계 어깨와 팔꿈치를 같은 위치에 두고 두 다리를 모아 허벅지를 서로 조여 홀딩합니다.

3단계 배의 수축을 그대로 유지하며 1분 유지합니다.

주의! 중간에 힘들면 무릎을 내리고 홀딩하



셔도 좋습니다.



4. 레그 레이즈

1단계 앞의 운동이 끝나면 제 가이드에 따라 또 한번의 1분 명상을 한 후 등대고 누워줍니다.

2단계 두다리를 천정으로 올려 다리를 곧게 펴줍니다.

3단계 허리를 바닥에 붙이고 아랫배의 힘으로 두다리를 45도 정도로 내립니다.

4단계 들숨에 다리를 다시 천정으로 올리고 날숨에 내리기를 반복합니다.



주의! 하다 허리가 아프다면 두다리를 너무 많이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영상을 따라 마지막 쿨다운 스트레칭과 바디 스캔을 통한 전신이완으로 마무리해주시면

온몸이 편안하게 릴렉스되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평소 잠을 깊게 이루지 못하시는 분이라면 자기전에 해보시면 숙면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유튜브도 좋지만 새해에는 라이브로 선생님과 소통하며 직접 자세 교정도 받고 싶다면?

하연샘과 함께 하는 매주 라이브 ZOOM 요가 & 필라테스

온라인 라이브 ZOOM 요가 & 필라테스 클래스의 장점

1.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단기간 '체중감량'은 물론, 근력 향상, 유연성 강화, 체형 교정의 효과

2. 꾸준한 회원관리로 지속적인 운동루틴을 생활화하도록 격려

3. 모니터를 통한 실시간 자세교정 (1:1 개인 레슨과 그룹수업 모두 신청 가능)

'기적의 다이어트 요가와 필라테스' 수업 1회 무료체험을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 아이디 [yogafitnesslife](https://www.yogafitness.life) 로 본인 이메일 주소와 함께 신청해주세요.

송하연, 요가티처/요가풀니스라이프 대표
유튜브채널 바로가기 <https://bit.ly/3w9ks4u>
카카오톡 아이디 [yogafitnesslife](https://www.yogafitness.life)
이메일 주소 connect@yogafitness.life
홈페이지 www.yogafitness.life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형제 떡집

모든 종류 떡 주문 가능!



GRAND RE-OPEN
축 재개업

영업 시간
달리버리: 상황에 따라 결정됨
픽업: 상황에 따라 결정됨
주문: 일주일 내내

CEL: 978.343.6080
CEL: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꿈의 집을 Compass Coming Soon 으로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Compass.com에서는 Compass Coming Soon을 통하여 마켓에 곧 나올 매물들의 정보를 미리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록은 당사 사이트에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매물들은 미리 선별하고, 결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Compass Coming Soon의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Catch the first glimp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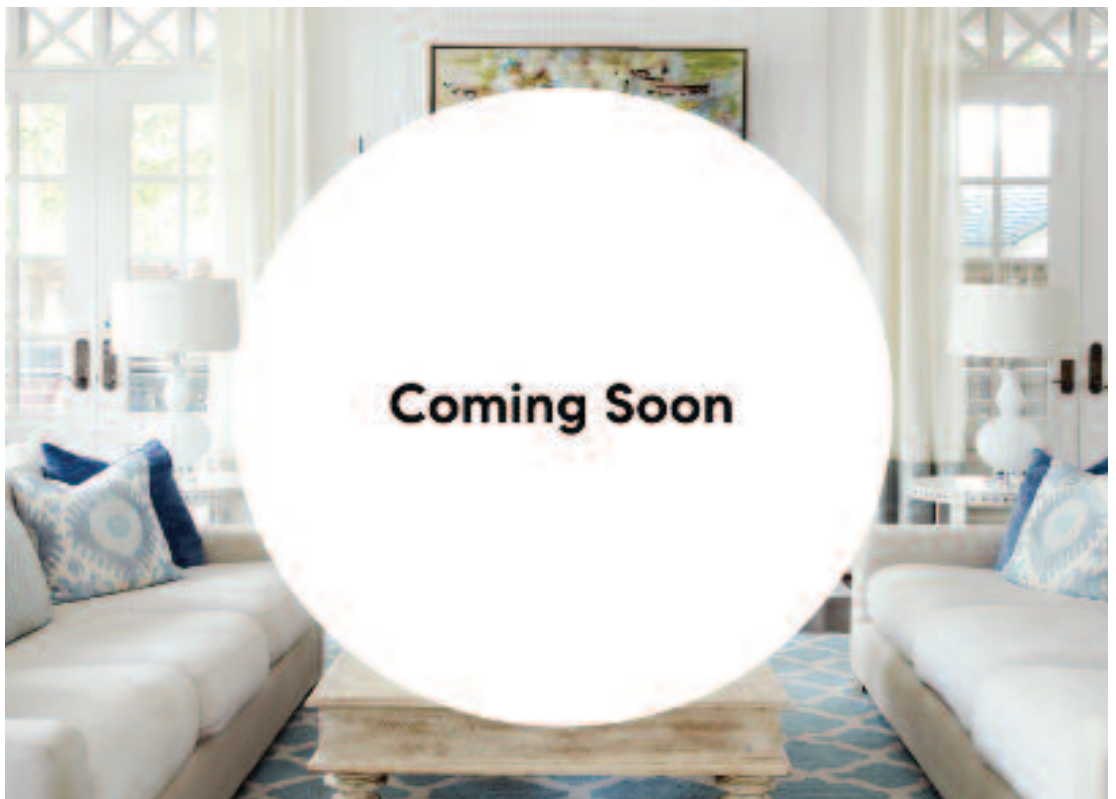
Compass Coming Soon 목록의 대부분은 공식적으로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Compass Coming Soon 으로 시작하므로, 다른 구매자보다 먼저 검색하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See the full market

Compass Coming Soon 목록은 한곳 Compass.com에서만 볼 수 있으므로, 항상 당사 사이트에서 시장에 대한 가장 완벽한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Streamline your search

Compass.com의 저장된 검색을 사용하여 꿈의 집을 놓칠 염려가 없습니다. 선호하는 목록 기준을 쉽게 설정하고 새로운 Compass Coming Soon 목록이 게시될 때마다 알림을 받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가요?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고, Compass 어카운트 셋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Jason Jeon 제이슨 전
Vice President
jason.jeon@compass.com
617.642.5670

COMPASS
COMING SOON

Compass is a licensed real estate broker and abides by Equal Housing Opportunity laws. All material presented herein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Information is compiled from sources deemed reliable but is subject to errors, omissions, changes in price, condition, sale, or withdrawal without notice. No statement is made as to the accuracy of any description. All measurements and square footages are approximate. This is not intended to solicit property already listed. Nothing herein shall be construed as legal, accounting or other professional advice outside the realm of real estate brokerage.



조 바이든 대통령

쉬운 대러제재 동나... 서방에 '양날의 칼'만 남았다

"지금까진 서방피해 최소화...이젠 고통 마주할 때" 에너지제재가 핵심...유럽 불협화음 속 미국 역할에 주목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서방이 러시아군 집단학살 정황에 추가 제재를 꺼내들고 있지만 손이 떨리는 모양새다. 서방이 러시아에 일방적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제재를 모두 가동해 이제는 자해 위험이 큰 선택지만 남겨두고 있기 때문이다. 로이터 통신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서방이 집단학살 정황을 두고 러시아의 책임 추궁 과정에 이 같은 딜레마를 겪고 있다고 6일(현지시간) 해설했다. 미 싱크탱크 외교협회(CFR)의 벤 스틸 국제경제국장은 "초기에 나왔

던 일련의 제재는 러시아에 타격을 입히면서 서방에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설계됐다"면서 "이제 서방이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순간이 왔다"고 말했다. 이날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 유럽연합(EU) 등 서방 국가들은 부차에서 발생한 러시아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에 대한 대응으로 한층 수위를 높인 금융 제재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유럽은 러시아에 대한 타격 수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에너지 제재는 건드리지 못했다.

원유와 가스 수출 대금이 러시아 정부 재정의 36%를 차지하는 까닭에 에너지 제재는 러시아 정부의 자금줄을 가장 효과적으로 질 수단이 다. 그러나 그런 제재가 시행된다면 러시아산 에너지에 의존도가 높은 유럽에 단기적으로 돌아올 역효과가 만만치 않다. 실제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미 의회에서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더 강력한 제재는 러시아 석유·가스 의존도가 높은 유럽 동맹국 때문에 아직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털어놓았다.

EU는 현재까지 러시아를 상대로 4차례 제재를 부과했으나 미국처럼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 수입을 금지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폴란드와 발트3국이 직접 에너지 제재에 나서고 동참을 촉구하면서 EU에서는 내홍까지 감지되고 있다. 폴란드는 지난달 말 러시아 석탄 수입을 중단하고 가스 수입도 오는 5월에 끊는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러시아에서 석유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달 1일부터는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는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구소련권이었던 이들 국가는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 위협이 커져 대러 제재를 강력히 주장한다. 그러나 유럽 내에서도 러시아 에너지 비중이 높은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등은 에너지 금수 조치에 미온적인 입장이다. 미 정치컨설팅 싱크탱크 유라시아그룹의 클레이턴 앨런 미국 담당 국장은 "쉽고 즉석에서 할 수 있는 건 이미 최고치를 찍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러 제재 수위를 높이려면 미국이 유럽에 에너지 공급·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럽이 에너지 위기로 경제 피해를 크게 받으면 득이 될 게 없다는 점도 짚었다. 앨런 국장은 "서유럽이 경기침체에 빠지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도덕적·물질적 지원을 급격히 제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에서 전직 준법감시인을 맡았던 대니얼 태너바움도 에너지 수입 억제에 대한 통일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곧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늘리는 선택지가 한정적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날 발표된 러시아에 대한 신규 투자 금지 제재는 더 많은 다국적 기업이 러시아를 떠나도록 만들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으로는 의약품 등 서방 제품을 러시아에서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더 많은 산업에서의 교역을 즉각 금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는 러시아 원유에 대한 수입금지 방안이 오는 11일 논의될 것이라며 일찍 시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kite@yna.co.kr



좋은사람들
www.jouneve.co.kr
성모안과

소중한눈!!! 정기검진하시나요?

유람이 경험하고 정직한 안과에서
당신의 소중한 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원장 박성진
▪ 20여년 수술집도
▪ 2만여건이상 수술

유람 -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 1. 유람 안 종합검진 (소요시간 30분 ~ 1시간 30분)**
 - 1) 기본 안검진 10만원
시력검사(나안/안경처방/타각적굴절/노안) / 세극등 현미경 / 안압 / 안저촬영 / 백내장, 녹내장 유무파악
 - 2) 프리미엄 안검진 25만원
각막부터 시신경까지 구성구석하는 안정밀검사로 40대 이상부터 2년마다 추천합니다.
기본 안검진 + 녹내장 / 백내장 / 안구건조증 / 시신경망막 / 기타 필요검사
- 2. 2030 라식라섹 (150만원 ~ 180만원 : 정밀검사 비용 포함)**
 - 불편한 안경과 렌즈에서 해방
- 3. 4050 노안라섹 (노안 + 백내장 해결) (180만원 : 정밀검사 비용 포함)**
 - 노안이 와도 돋보기와 안경도 빛는 꽃중년 라섹
- 4.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수술 (429만원 : 단안)**
 - 노안 + 난시 + 백내장 동시 해결

※ 상기 비용은 개인별 눈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유람을 통한 예약시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무료전화(Call for Free)
1-844-DO HURAM (1-844-364-8726)
010-3469-4040 | ID: 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매파' 불러드 "연준 늦었다...연말까지 금리 3.5%로 올려야"

올해 남은 FOMC 회의에서 모두 '빅스텝' 촉구한 셈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예고한 가운데 연준 내부에서 연말까지 금리를 총 3%포인트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7일(현지시간) 미주리대 토론회에서 올해 안에 기준금리가 3.5% 수준까지 올라야 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과 마켓워치 등이 전했다.

연준에서 가장 매파(통화긴축 선호)적 인사로 분류되는 불러드 총재는 "올해 하반기에 그지점에 도달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움직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0.25%포인트의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현 기준금리가 0.25~0.50%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내 3%포인트의 추가 인상을 촉구한 것이다.

이는 올해 남은 6번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매번 0.5%포인트씩 올려야 달성 가능한 수준이다.

전날 공개된 3월 FOMC 회의의 사록에 따르면 다수의 참석자는 향후 "한 번 이상"의 0.5%포인트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은 바 있다. 불러드 총재가 제시한 목표치는 시장의 기대보다 훨씬 매파적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연말 금리가 2.5~2.75%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5%는 2023년 여름에나 달성 가능한 수치로 시장은 보고 있다.

그러나 불러드 총재는 "물가상승률이 너무 높다"면서 연준이 인플레이션 대처에 있어 "여전히 뒤처져 있다"며 고강도 조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올해 FOMC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불러드 총재는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이례적으로 높다. 1970년대



매파적 성향의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올해 기준금리를 3.5%까지 올려야 한다고 7일 주장했다

에서 1980년대 초 인플레이션에 비견될 정도"라며 "정책금리를 많이 올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큰 폭의 금리인상이 미국의 경기

침체를 초래할 것이라 일각의 관측에 대해선 "오랫동안 경제 팽창이 지속될 수 있다"며 반박했다.

그는 "향후 몇 차례 회의에서 정책

금리를 상당폭 올리더라도 여전히 중립 금리 수준 아래"라면서 "우리가 경기침체를 유발할 것이라 주장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재무장관 "가상화폐 위험 줄이기 위해 적절한 규제 필요"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7일(현지시간) 폭발적으로 시장 규모가 확장하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강화된 제도적 규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AP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 있는 아메리칸대 강연에서 "은행과 전통적 금융권이 디지털 자산 시장 관여

를 확대함에 따라, 규제의 틀이 이들 새 행위에 따른 위험을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거래소들은 적절한 형태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규제들은 경제와 금융 체계를 어지럽힐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면서도 혁신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도

했다. 옐런 장관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CD) 발행에 대해서는 수년이 걸릴 수 있는 일이며 결론은 알 수 없다는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그는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 아직 모르겠지만, CBDC 발행은 중대한 일이고 몇달이 아닌 수년에 걸친 발전을 요하는 도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초 연방정부 차원의 가상화폐 연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미국은 그간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CBCD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해 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1월 '디지털 달러화'의 장단점을 설명한 백서를 발간하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 논의에 착수한 바 있다.

옐런 장관의 발언은 바이든 대통

령의 행정명령 뒤 가상화폐와 관련해 처음으로 나온 공식 언급이다. 미국 정부는 가상화폐를 비롯한 디지털 자산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미국뿐 아니라 각국 정부는 기존 금융 제도의 사각지대에 위치하지만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가상화폐의 불법 자금 조달 창구로서 역할에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다.



코로나 사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건강이 당신의 가족을 지킵니다



작년 가계 주식투자 · 차입 또 '최대'...상반기까지 빛투 이어져

국내외 주식 110.5조원 취득, 금융기관 차입 189.6조원, 금융자산 내 주식 비중 처음 20% 넘어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지난해 가계가 주식 투자를 위해 굴린 돈이 2020년에 이어 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본격적 금리 인상이 시작되기 전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동학개미', '서학개미' 등 주식투자 열풍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가계의 금융기관 차입금(대출)도 기록을 세웠다. 작년 가계 주식투자의 상당 부분이 대출을 통한 '빛투'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행이 7일 공개한 '2021년 자금순환(잠정)' 통계에 따르면 가계(개인사업자 포함)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 운용액은 141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보다 48조7천억원 감소했다.

순자금 운용액은 해당 경제주체의 자금 운용액에서 자금 조달액을 뺀 값으로, 보통 가계는 이 순자금 운용액이 양(+)인 상태에서 여윌 돈을 예금이나 투자 등의 방식으로 기업이나 정부 등 다른 경제주체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작년 가계의 순자금 운용액 감소는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소비가 본격적으로 늘어 그만큼 여윌 돈도 줄었기 때문이다.

자금 운용을 부문별로 나눠보면, 가계의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92조5천억원 · 비거주자 발행주식 제외)가 2020년보다 36조9천억원 늘어 2009년 통계 편제 이래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투자펀드를 제외하고 가계는 작년 국내외 주식에만 110조5천억원의 자금을 운용했다.

한해 거주자 발행 주식 및 출자지

분(국내주식) 87조6천억원어치와 비거주자 발행주식(해외주식) 22조9천억원어치를 취득했는데, 이는 각각 역대 최대 규모다.

작년 말 기준 가계의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취득 잔액(944조6천억원, 77조3천억원) 역시 새 기록이었다.

이에 따라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전체 금융자산 내 주식의 비중도 2020년 말 19.4%에서 지난해 말 20.8%로 늘어 처음 20%를 넘어섰다.

다만 지난해 상 · 하반기를 나눠 보면, 하반기 가계의 주식 등 위험자산 투자 열기는 상반기보다 상대적으로 식었다.

상반기 가계의 국내외 주식 취득액은 80조9천억원(국내 65조6천억원+해외 15조3천억원)에 이르는 데 비해 하반기 주식 취득액은 29조6천억원(국내 22조원+해외 7조6천억원)에 그쳤다.

반대로 장기저축성예금은 상반기 10조6천억원 감소에서 하반기 16조1천억원 증가로 돌아서면서 금리 인상 등과 함께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2020년 말 기준으로 비교하면 우리나라 가계의 주식 비중(19.4%)은 미국(36.9%)과 프랑스(22.2%)보다는 낮지만 영국(10.4%), 일본(10.9%)을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해 가계의 자금 조달액도 역대 가장 많았다. 가계는 192억1천만 원의 자금을 끌어왔고, 이 가운데 금융기관 차입이 189조6천만원에 이르러 기록을 경신했다.

방중권 한은 경제통계국 자금순환팀장은 "가계의 대출 등 자금조달



작년 가계 주식투자 · 차입 또 '최대'

규모가 늘어난 것은 주택 관련 대출 수요가 이어진데다 소비 회복으로 판매신용(결제 전 카드사용액 등)도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비금융 법인기업의 경우 작년 순조달 규모가 74조3천억원으로 2020년(89조6천억원)보다 줄었다. 수출 호조 등으로 기업의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 자금 사정이 좋아졌기 때문이라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다만 지난해 대출(174조4천억원)과 주식발행(64조3천억원)을 통한 자금조달은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정부 부문의 순조달 규모도 1년사이 20조6천억원에서 12조7천억원으로 축소됐다.

코로나19 등에 대응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집행하면서 정부 소비가 늘었지만, 국세 수입이 더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shk999@yna.co.kr

전국서 19만9836명 확진... 누적 1500만명 근접

(전국종합=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국내 오미크론 유행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7일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20만명에 가까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19만9천836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같은 시간대 집계치인 22만464명보다 2만628명 적은 수치다.

1주 전인 지난달 31일 동시간대 집계치(27만1천599명)와 비교하면 7만1천763명, 2주 전인 지난달 24일(32만8천909명)보다는 12만9천73명 감소했다.

지난 2월 24일 오후 9시 기준으로 14만3천229명을 기록한 후 매주 목요일마다 20만~30만명대를 오르내리다 6주 만에 다시 10만명대로 내려왔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하루 뒤인 8일에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이보다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7일 0시 기준 1천477만8천464명이었던 누적 확진자수는 오후 9시까지 19만9천836명이 추가되면서 1천500만명에 가까워졌다.

이날 오후 9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10만23명(50.1%), 비수도권에서 9만9천813명(49.9%)이 나왔다.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BURLINGTON WEEKLY SALE APR. 8th - APR. 14th, 2022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ID : @hmart_ma



EARLY SPRING FRESH, FRESH, FRESH KIMCHI

The beginning of spring calls for a fresh dish like bomdong geotjeori! With leaves sweeter and crunchier than the well-known napa cabbage, many flock to the tables to take in the fresh flavors of spring in each bite!

달달하고 아삭아삭한 식감이 일품인 봄동으로 H 마트와 함께 걸걸이를 만들어보세요!

H 마트와 함께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
몸의 거리는 넓히고, 마음의 거리는 좁혀야 할 시간. H 마트 고객분들과 직원분들의 안전을 위해 6피트 안전 거리를 확보해주세요!

Join the H Mart Social Distancing Campaign, to help slow down the spread of COVID-19 for you and our H Mart family. Keeping 6 feet apart will bring us together again.



<p>Sweet Potato 코이모 고구마 LB \$2.49</p>	<p>Korean Pear 한국산 신고배 PRODUCT OF KOREA 9 CNT/BOX \$34.99</p>	<p>Washington Fuji Apple 워싱턴 후지 사과 PREMIUM QUALITY/LB \$1.69</p>	<p>Persian Cucumber 페르시아인 오이 14 OZ/PKG 2\$3 FOR</p>	<p>Fresh Garlic 흰마늘 팩 5 PCS/PKG 2\$3 FOR</p>
<p>MARATHON Ataulfo Mango 마라톤 아돌포 망고 BOX \$12.99</p>	<p>Stem Tomato 스텝 토마토 LB \$1.49</p>	<p>Kabocha 단호박 LB \$0.99</p>	<p>Idaho Potato 아이다호 감자 LB \$0.79</p>	<p>SOONYEOWON Tofu 수녀원 두부 SOFT/FIRM/SILKEN 16 OZ/PKG \$1.49</p>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p>U.S.D.A. CHOICE Fresh Beef Top Blade Steak 생 부채살 (낙엽살 스테이크) LB \$10.99</p>	<p>Fresh Beef Eye Round 생 홍두깨살 (장조림용) CHUNK/LB \$8.99</p>
<p>Fresh Pork CT Butt 생 돼지 목살 (수육용) CHUNK/LB \$5.99</p>	<p>Fresh Boneless Chicken Breast 생 뼈없는 닭가슴살 LB \$3.99</p>
<p>Smoked Duck 훈제오리 SLICED/LB \$17.99</p>	<p>Marinated Pork Single Belly 양념 삼겹살 LB \$6.99</p>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p>SHINWHA Roasted Dried Filefish Fillet 신화 쥬포구이채 4.58 OZ X 2 PKG \$9.99</p>	<p>Frozen Chilean Sea Bass Steak 냉동 칠리안 씨베스 스테이크 LB \$24.99</p>
<p>Frozen Unagi Kabayaki 냉동 우나기 6 OZ/PKG \$8.99</p>	<p>Frozen Headless White Shrimp 냉동 머리없는 흰새우 26-30 SIZE/LB \$6.99</p>
<p>Frozen Scampi Shrimp 냉동 스캠피 새우 11-25 SIZE /LB \$9.99</p>	<p>Fresh Hybrid Striped Bass 양식 농어 LB \$7.99</p>

SMART CARD MEMBER ONLY

<p>H MART SMART CARD ONLY HARU HARU Medium Grain Milled Rice 하루하루 마이 쌀 15 LB \$13.99</p>	<p>H MART SMART CARD ONLY KWANGCHEON Green Tea Seaweed /Seasoned Laver 광천 녹차 김/청파래 김 선물세트 \$12.99 0.71 OZ X 10 EA/BOX</p>
<p>H MART SMART CARD ONLY HAIO Frozen Seasoned Pollack Roe 해오름 명란젓 2.2 LB \$24.99</p>	<p>H MART SMART CARD ONLY HAIO Yuza Tea with Honey 해오름 유자차 2.2 LB \$5.99</p>

<p>RAW NATURE Brown Rice 자연담은 현미 15 LB \$13.99</p>	<p>RAW NATURE Cooked White Rice 자연담은 흰쌀밥 7.4 OZ X 12 EA/BOX \$12.99</p>	<p>OTTOGI Jin Ramen 오뚜기 진라면 SPICY/MILD 4.23 OZ X 18 EA/BOX \$14.99</p>	<p>PULMUONE Dried Seaweed 풀무원 진국미역 3.52 OZ \$4.99</p>	<p>JINGA Beef Bone Flavored Soup 진가 사골곰탕 16.9 FL OZ X 6 EA/PKG \$10.99</p>
<p>S&B Golden Curry S&B 골든카레 MILD/HOT /MEDIUM HOT /EXTRA HOT 7.8 OZ \$2.99</p>	<p>GOMPYO Co-Brand Frying Mix/Korean Pancake Mix 곰표 Co-Brand 튀김가루/부침가루 2.2 LB 2\$5 FOR</p>	<p>YOODONG Canned Mackerel 유동 고등어 캔 14.1 OZ \$1.99</p>	<p>HAITAI Matdongsan Peanut Crunch 해태 맛동산 10.58 OZ \$2.99</p>	<p>CROWN White Heim/ Choco Heim 크라운 화이트하임/ 초코하임 10.02 OZ/PKG \$3.99</p>
<p>SAMYOOK FOODS Black Bean Calcium Soy Milk 삼육 검은콩 칼슘 두유 \$15.99 6.5 FL OZ X 24 EA/BOX</p>	<p>KWANGDONG Vitamin-C Drink Vita 500 광동 비타민 드링크 비타500 \$5.99 3.38 FL OZ X 10 BTL/S/PKG</p>	<p>CAPSTONE Gas Burner (ST-7000) 캡스톤가스렌지 (ST-1000) -\$24.99 \$19.99 EA</p>	<p>Nickel Silver Pot 양은 냄비 -\$11.49 \$8.99 22CM EA</p>	<p>KOTO Detachable Electric Bamboo Grill 코토 분리형 대나무 전기그릴 -\$62.99 \$44.99 EA</p>

프리미엄 김치 브랜드
1000 YEAR KIMCHI
TASTE THE BOLD TRADITION

유산균 김치 / 100% 천연재료 사용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30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사장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부사장 애나 정
617.780.1675
Boston Branch Manager
anna@bostonpremierrealty.com

이사 이제봉
781.654.5281
South Shore Branch Manager
jeblee@bostonpremierrealty.com

Steve Kwon
508.326.6285
Director of HR/Customer relationship
Steve@bostonpremierrealty.com

Kathy Eunsuk Song
413.313.4165
Manager of Hadley Branch
kathysong2019@gmail.com



크리스틴 손
773.968.2651
christine@bostonpremierrealty.com



신보경
508.361.6064
boshin@bostonpremierrealty.com



줄리 전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오성빈
978.505.3736
osb@bostonpremierrealty.com



Nikkie Park
617.447.0591
nikkiepark@bostonpremierrealty.com



이현주
401.935.3397
hyunju@bostonpremierrealty.com



최은경
781.690.4389
chrischoi@bostonpremierrealty.com



사라 유
617.838.5787
sara@bostonpremierrealty.com



Rick Shin
781.530.0034
ricks@bostonpremierrealty.com



이준균
617.543.5728
jun@bostonpremierrealty.com



다이애나 김
617.271.2037
diana@bostonpremierrealty.com



Shirley Zhao
857.231.0316
shirley.zhao@bostonpremierrealty.com



지나 최
978.866.3248
gina@bostonpremierrealty.com



최진민
617.877.0387
jinchoi52@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콥 신 617.710.8836
jacob@bostonpremierrealty.com

앤드류 리 857.540.1588
andrew@bostonpremierrealty.com



피터 주
617.780.7839
peter@bostonpremierrealty.com



이영순
781.800.3412
bostonyi@bostonpremierrealty.com



송문주
213.503.0397
marcia@bostonpremierrealty.com



미키 최
413.507.1402
mickichoi@gmail.com



한혜숙
781.999.1214
hhan@bostonpremierrealty.com



샬리 임
781.690.4309
hyunmi@bostonpremierrealty.com



Ritika Chopra
617.697.1191
rchopra@bostonpremierrealty.com



비비안 유
617.935.2713
vivian@bostonpremierrealty.com



Nancy Wang
617.230.9952
nancywang6000@bostonpremierrealty.com



황수진
617.538.6973
sujinhwang1@gmail.com



레이첼 김
617.852.7485
rachelkim@bostonpremierrealty.com



Jason Chen
978.277.8439
song@bostonpremierrealty.com



Henry Nguyen
617.803.8341
henry@bostonpremierrealty.com



John Tran
617.406.9852
john@bostonpremierrealty.com



차민영
651.402.5194
minyoung@bostonpremierrealty.com



제이크 김
781.956.0409
drjakekim@bostonpremierrealty.com

PREMIER WORKS

좋은 사람들이 우리집처럼 여기고 정성껏 일하는 PREMIER WORKS. 각각 다른 레벨의 일에 맞는 인력이 투입되어서 비용을 절감합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인력이 공정 관리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합니다.

홈 리노베이션, 홈 익스텐션, 핸디맨잡, 배관, 전기, 난방, 커머셜/식당 디자인 시공.

“ I just wanted to say thank you for a job well done. The floors look terrific! I know the project was a challenging one, but I'm happy to say you and your team more than met the challenge. In addition, a concern I've had with contractors is not following up with loose ends. I'm happy to report all follow up requests were completed in a timely manner. In short, I highly recommend and will continue to use Premier Works for all of my flooring needs!

Sincerely, Mr. M. Malden, MA ”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Property Management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건물을 관리해 드립니다. 건축가, 부동산, 건축시공 전문가들이 함께 관리 합니다. All size condo, single family, multi family, commercial, Hands Free, All in One Service

렌트비 관리, 유지관리, 테넌트관리

Premier Realty Group
617.515.1162
info@bostonpremierrealty.com

WEEKLY SPECIAL

SOLD

10 Nouvelle Way

Listed Yesterday,
Offer Accepted Today !!

보스톤 전망대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은한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수행을 위해 요석을 멀리하다

원효가 요석공주와 함께 신혼을 즐긴 것은 단지 사흘뿐이었다. 그는 서둘러 요석공주와 작별하고 자신의 고향인 지금의 경산압량반룡사로 거처를 정하였다. 요석공주는 반룡사에서 멀지 않은 삼성산 자락 만가에서 아이를 낳게 되었으니 그가 바로 신라 10현 중의 한 명인 설총이었다. 아기 아빠가 되어 있어야 할 원효는 지금의 경기도 소요산 자재암에 머물면서 수행에 전념하고 있었다. 요석공주는 홀로 떠나버린 원효를 찾아 설총을 데리고 자재암을 찾았으나 원효를 만나지 못하였다. 공주는 산아래에 별궁을 짓고 아침 저녁으로 원효가 수도하고 있는 원효대를 향해 아들과 함께 예배를 올렸다고 한다.

여기서 우리는 원효대사의 행적에 의구심을 아니 가질 수 없다. 원효는 자신이 아들을 가지고 싶다는 말을 온 신라에 널리 알리고 공주까지 차지하게 되었는데 신혼 사흘만에 탈탈 털고 떠나겠다고 하니 경망스럽기 그지 없다. 끝내는 본인이 원하던 아들과 생겼는데도 공주를 외면하니 존경받는 스님으로 취할 도리가 아니었다.

삼국유사의 저자 일연 스님은 두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쓸 때 '향전'이라는 신라 향토 설화를 인용하였다고 하는데 일연 스님 본인에게도 이들의 이야기가 기이하다면서 그 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였다. 두사람은 끝내 함께하지 못했다. 소요산 자재암은 서기 654년 원효가 창건한 암자이다. 요석공주와 인연이 있는 뒤 오로지 수행에 정진하려는 일념으로 자재암 자리에 초막을 짓고 수행에 전념하였다. 관음보살이 수행의 깊이를 알아보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해 원효를 유혹했지만 이를 물리치게 된다. 다음날 원효는 관음보살의 진영을 접하고는 비로서 자재암에의 수행을 경험했다고하여 이곳을 자재암이라고 이름하게 되었다.

무애자재란 말은 깨달음의 경지를 일컫는 말로 매사에 걸림이 없고 자유로운 것인데 결코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는 제멋대로의 언행은 결코 무애행이 아니고 부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 가장 합당한 무애의 삶이라고 한다. 원효는 천한 사람들 속에서 함께 어울려 놀았다. 일찍이 저자거리에서 가무를 하고 노래를 불러 이를 무애라 하였다. 밭가는 늙은이도 이를 모방하여 유희로 삼았고 노래를 지어 세상에 퍼트렸다. 일찍이 이것을 가지고 방방곡곡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교화하고 돌아오니 가난하고 무지몽매한 무리들까지도 모두 부처의 이름을 알게 되고 모두 나무(南無)를 알고 나무아미타불을 칭하게 되었다. 이는 모두 원효의 법화로 생긴 것이었다. 여기에 의상대사와 관세음보살이 불법의 힘을 빌어도 와주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 완성되는 것이다. 아미타보살이 내세를 주관하고 관세음보살이 현세를 보살피니 이는 화엄종의 기본 사상을 충족시키게 되는 것이다.

원효가 머물고 있었던 소요산은 산세가 금강산처럼 웅장하지는 않지만 기암괴석과 경관이 아름다운 곳이다. 소요산 구석마다 원효, 요석의 이야기가 스며있고 설총의 이야기가 배어 있는 곳이다. 원효대사가 요석공주를 두고 이름지었다는 공주봉 산봉우리가 있고 소요산 최정상인 의상봉으로 불러 한평생 사제의 정을 두텁게 하고 있다. 자재암에는 원효샘이라는 샘이 있는데 세간에 원효의 덕행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소요산으로 몰려들기 시작하였다. 무엇보다 식수를 해결하기가 어려웠다. 소요산이 돌산이라 마땅한 샘터가 없어 걱정하던 중 하루는 원효대사가 선정에 들어 지맥을 관찰하다 바위사이로 깨끗한 물줄기가 솟는 것을 발견하고 바위틈을 뚫어 깨끗한 물을 흐르게 하였다.

그후에 신기하게도 이 물을 마신 사람들이 속병은 물론 각기 위장병이 치료되었다고 한다. 그 이후로 원효가 만든 우물이라 하여 원효정으로 불리게 되었다. 여러 곳에서 만병통치의 약물로 소문이 퍼져 음력 3월3일 삼짇날에는 물을 마시러 오는 행렬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데 반면에 상주하는 수행승려가 수행에 어긋나게 하면 물이 조금씩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소요산은 경기도 동두천에 있는 해발 536m의 산이다. 산세가 수려해서 수많은 시인 묵객들이 즐겨 찾아드는 곳으로 알려져 왔는데 그중에 고려 때의 시인이자 문장가인 백인이 규보가 있고, 금세기에는 화담 서경덕, 매월당 김시습, 조선 4대 서예가이며 '태산가'로 널리 알려진 봉래 양사언이 있다.

이들이 이곳을 자주 찾아 소요했다고 해서 소요산이라는 지명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한다.

서당 화상비(誓幢 和上碑)와 송고승전

서당 화상비는 원효의 손자 설중업이 9세기 초에 원효를 추모하기 위해 원효의 일생에 관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망라하고 있는 기념비인데 기이한 일이지만 원효의 부인 요석공주의 이름이 빠져 있었다. 참고로 원효의 세속이름은 설서당이었다.

송 고승전은 서기 988년에 중국 송나라 승려인 찬녕(918-1002)이 저술한 중국과 신라, 고려의 고승전기이다. 원효에 대한 기록이 잘 되어있지만 설총의 어머니가 공주였다는 기록이 전혀 없고 또한 삼국사기 설총전에도 요석공주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삼국유사를 쓴 일연 스님은 원효의 부인이 평범한 일반인 보다는 공주라고 부르는 것이 원효와 같은 위대한 인물에게 더 어울린다는 생각에 이런 설화가 지어졌으며 일연 스님은 그런 설화를 자신의 책에 반영한 것 뿐이라고 추정했을 것이다.

당시 신라는 엄격한 골품제 사회로 성골과 진골이라는 왕족이 있었고 그 밑에 6두품, 5두품, 4두품으로 이어지는 귀족 사회가 있었



원효 스님이 고행 수도한 동두천 소요산 자재암



원효 대사가 고행 수도한 소요산 원효굴



원효 대사가 고행 수도한 소요산은 시인 묵객들이 줄을 이어 찾아 들었다. 양사언 초서, 보물 제1624호



경기도 소요산 자재암의 요석공주 별궁지



108 계단을 밟고 소요산 자재암을 오르면 번개가 사라진다

다. 요석공주는 왕족 진골에 속해 있었고 원효 가문은 귀족 가문 중 제일 높은 6두품에 속해 있었는데 진골과 6두품이 서로 결혼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었다. 만약에 이들이 결혼하면 원효와 공주는 6두품으로 강등되어 지금까지 누려온 많은 혜택을 당대는 물론이고 자손대대에 이르도록 상실하게 된다. 가장 비극적인 예를 들면 낭해 선사는 태종 무열왕의 후손으로 진골 귀족이었는데 강등되어 6두품 귀족이 되었다. 신라 사회에서 친족은 7대까지이고 8대에 이르면 진골에서 6두품으로 강등되게 된다. 원효의 후손인 설총

과 설중업은 훌륭한 학자였지만 골품제의 폐단을 넘지 못하고 크게 등용되지 못하게 된다.

경남대 인문학과 최유진 교수는 원효가 태종무열왕의 딸과 결혼하는 것은 설화의 세계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실제 역사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신라 왕실 여자들은 아래 골품과는 결혼하지 않았다(이종욱), 골품제에서는 같은 신분의 사람들끼리 결혼했다(이종욱), 육두품은 아예 진골과는 결혼상대에서 제외된 신분이었다(이기백).



간단하고 신속한

주택 용자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십니까 켈리 김 입니다.
주택에 관한 모든 용자들 도와 드립니다.

풍부한 경험 · 낮은 이자율 · 최상의 결과
개인별 맞춤 용자 · 캐쉬아웃

바로 연락 주세요.

“ 급하게 시작한 상태이고 준비가 미약한 제 상태에서 괜찮은 집을 찾았지만 주변에서 안될수도 있다고 했지만 제 상황을 맞춰서 시간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켈리님을보고 만나지도 않았고 느껴지는 강한믿음!! 이분은 정말 이분야에서 정말 최고이신것 같습니다. 미국말이 더 편하시분인데도 한국말로 자세히 제가 알수 있도록 언제나 빠르게 진행해주시고,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 Lim

”



켈리 김

한국어, 영어 가능
 주택대출 담당 - nmls #2027241
 FL, MA, ME, NJ, NH, RI, TX 라이선스.
 이메일: kkimthielen@radiusgrp.com
 전화: 617.733.5014
 한국어 웹사이트: info.radiusgrp.com/ko/kthielen
 English Website: www.radiusgrp.com/kelliekimthielen



600 Longwater Drive, Suite 107, Norwell, MA 02061

Kellie Kim Thielen, Loan Officer - NMLS # 2027241; Licensed in MA, ME, NH, NJ, RI, TX. Employed by radius financial group inc., NMLS #1846., FL Lender/ Servicer MLD309/MLD1562; MA Lender/Broker MC1846 ME SLM6596; NH 7986-MB; NJ Residential Mortgage Lender License and RMLA-Licensed Mortgage Servicer Registration 1846; RI Licensed Lender/Broker 20031544LL/20183611LB; TX SML Mortgage Banker Registration Equal Housing Lender.



이 광고를 보는 한국연변신문사원의
동부라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발사되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곧 도착! 주차하고 갈게!!!



오빠 어디야? 난 다 왔어~

서로의 위치는 확인했지만 눈앞의 위험은 확인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보행 중 교통사고 60% 이상이 스마트폰 사용 중 발생합니다.

국인 김규연 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1 공익광고 공모전 수상작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t. Anthony (Dabuliu) Parish (Korean Church)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은
새 입교자를 위한 교리반을
9월 중순에 시작합니다.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일 미사 (Sunday)
오전 9시 30분 (English)
오전 11시 (Korean)
오후 4시 30분 (Korean)

평일 미사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매달 첫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본당 유튜브 채널주소
<https://bit.ly/2l16Zd7>

Contact:
stadparish@gmail.com
617-558-2711



45 Ash St, Newton MA 02458 / 617-658-2711
stadparish@gmail.com / stadveluychurch.org
www.facebook.com/stadveluy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를 노려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경렬



핸디맨 앤디

HANNDYMAN ANDY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종교동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3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우스터한국교회: 토 9:30~12:30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담임목사: 김현태
617.780.4178
Fax: 508.799.4488
<http://workmc.org>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아프트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 mchae@dependableusa.com
web : 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골프 레슨



최성조 프로

매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sj.usgtf@gmail.com

857.600.6755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Pray for Ukraine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에 무릎꿇지 않겠습니다.

Fundraising Dinner & Dance

Date: April 30, 2022 (Saturday) Time: 7 PM - 11PM

**V F W Function Hall
 190 Plain St. Lowell, MA 01852**

Contact : 978.828.5818 978.807.16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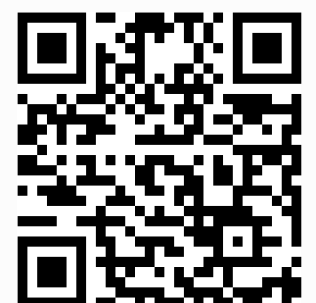


백신을 접종해

#여러분의 가족을 보호하세요

무료 코로나-19백신을 접종받으세요
 신분증, 건강보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백진접종장소를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찾으세요
[MASS.GOV/COVIDVACCINE](https://mass.gov/covidvaccine)



Asian American Civic Association



Eastern Bank

JOIN US FOR GOOD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680) 사업체 운영과 노후대책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노인이 죽는 건 도서관 한 채가 없어지는 것과 같다.” 라는 말이 있다. 한평생 축적된 지식과 지혜 그리고 한 사람의 많은 경험함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소중한 노인들이 미국에 이민 와서 온갖 고생 하며 아이들 키우며 한평생을 살았는데 남아있는 것은 말년의 어려운 삶이다.

최근 미 가정의학회(ABFM) 학술지에 게재된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UCLA) 연구팀의 ‘아시아계 미국 노인의 삶 만족도’ 연구에서 ‘자신의 삶에 만족감을 표한 아시아계 노인은 전체 표본의 54%에 불과했다. 이것은 다른 인종의 평균 만족도 8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이며 한국인 고령층의 만족도는 아시아인 중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미국에 이민 온 일 세대는 대부분 남의 사업체에서 일하다가 비즈니스를 시작한다. 언어도 자유롭지 못한 이국땅에서 아이들 키우면서 한푼 두푼 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심지어 목숨을 담보 삼아 비

즈니스를 운영했는데 노후 생활까지도 매우 불확실하다.

일반 직장인, 공무원, 전문직, 등의 종사자는 비교적 은퇴계획을 쉽게 준비할 수 있다. 직장에서 은퇴를 위한 투자제도가 일반적으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은 본인이 알아서 은퇴 준비를 해야 한다. 비즈니스 운영하기도 바쁜 상황에 은퇴를 계획한다는 것이 그야말로 ‘말자 편한’ 이야기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노동으로 부를 쌓는 것은 한계가 있다. 직장인이나 자영업을 운영해서 부를 쌓는다는 것이 어려운 일인데 은퇴한 후에도 일하지 않고 꾸준한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투자의 귀재인 워런 버핏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자금이 불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한다.” 라고 언급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미국은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체제이다. 경제체제의 하나인 모든 기업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

하여 열심히 일한다. 기업의 주식을 소유해야만이 여러 기업이 밤낮으로 열심히 일해서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투자 돈이 불어나게 하는 것이다.

모든 투자는 수익률이 중요하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에게 7% 투자 수익률을 말하면 ‘웃기지도 않는다’라고 생각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웃 한 벌 25달러에 가져와서 50달러에 팔면 100% 수익’을 바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나무 한 그루만 보고 전체 숲을 보지 못한 결과’이다.

은퇴 준비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은퇴플랜을 최대 이용하는 것이다. 은퇴플랜이 없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인은 IRA (Individual Retirement Arrangement) 를 이용해서 투자할 수 있다. 투자는 Traditional IRA와 Roth IRA 두 종류가 있다. Traditional IRA는 투자할 때 세금공제 혜택이 있지만 불어난 돈을 찾을 때는 수입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내며 Roth IRA는 투자할 때 세금공제가 되지 않지만 찾을 때는 원

금과 불어난 이익금에 대해서 세금이 없다.

노후대책으로 매년 \$6,000 (IRA 투자)씩 수익률 10%로 투자하면 25년 후에는 70만 불 그리고 30년 후에는 100만 불 불어난다. 적은 돈으로 이렇게 큰돈을 모을 수 있는 이유는 복리(Compound Interest) 효과 때문이다.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장기 투자하면 목돈이 되어 노후대책에 큰 도움이 된다. 참고로 미국의 주식시장(S&P 500 Index)은 1926년부터 현재까지 연평균 수익률이 약 10%이다.

비즈니스를 크게 만들어 보겠다는 희망을 품고 비즈니스에 재투자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노후 준비도 함께해야 한다. 주식 투자는 처음에는 크게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가며 복리효과로 눈덩이처럼 커진다. 내가 잠들고 있는 동안에도 나의 투자가 여러 기업에 투자되어 수익이 창출되는 것이다. 제대로 하는 주식투자도 은퇴 후에도 수익이 꾸준히 창출되어 부부가 편안하고 안락한 은퇴 생활로 이어지기를 희망해 본다.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郎世紀), 24세 풍월주(風月主) 천광공(天光公)(3)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을 이끌었는데, 그들의 파맥(派脈)인 맥파(脈派)를 보면 풍월주의 숫자는 진골정통이 많았지만, 후대로 이어지면서 가야파 낭두들의 득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풍월주들의 파맥을 보면 다음과 같다.

1세 풍월주 위화랑은 어머니가 벽아부인이기에 파맥이 없다. 500년 경 소지왕이 날이군(현 경북 영주)으로 순시를 나갔을 때 그곳의 지방관인 파로(섬신공인지는 분명하지 않다)의 부인 벽아와 딸 벽화를 데리고 와 후궁으로 삼았다. 위화랑의 부모는 섬신공과 벽아이다.

2세 풍월주 미진부의 어머니는 삼엽궁주인데, 삼엽의 어머니가 벽화이기에 파맥이 없다. 삼엽의 아버지는 법흥왕이다.

3세 풍월주 모랑은 어머니가 보과공주이다. 보과는 백제 동성왕의 딸이기에 파맥이 없다. 모랑의 아버지는 법흥왕이다.

4세 풍월주 이화랑의 어머니는 준실부인으로 파맥이 없다. 준실의 부모는 이흔과 준명이고, 준명의 부모는 제20대 자비왕과 미사흔의 딸(왕후)이다.

5세 풍월주 사다함의 어머니는 금진낭주로 대원신통파이다. 금진의 부모는 위화랑과 오도이다. 사다함의 아버지는 구리지이며 그의 부모는 비랑과 벽화이다.

6세 풍월주 세종은 어머니가 지소태후이기에 진골정통파이다. 세종의 아버지는 태종이 사부이다.

그리고 원화미실은 묘도의 딸이기에 대원신통파이다. 원화제도가 부활되지는 않았지만, 미실은 당시 왕인 진흥왕의 총애를 받아 후궁(새주, 전주)으로 있으면서 화랑을 이끌었다. 미실의 남편 세종은 변방의 전장에서 많은 공을 세우며 영토를 확장하였다.

7세 풍월주 설원랑의 어머니는 금진이기에 대원신통파에 속한다. 설원랑은 사다함의 이부동복 아우이다. 설원랑의 아버지 설성은 사다함의 아버지인 구리지의 용양신이었는 데, 구리지가 554년 관상성 전투에서 전사하자, 설성과 금진이 결혼하여 설원랑을 낳았다.

8세 풍월주 문노는 어머니가 가야에서 온 문화공주이기에 가야파이다. 문화공주는 가야북국왕 찬실의 딸로, 가야와의 외교에 세 큰 공을 세운 호조의 첩으로 신라에 왔다. 그러다가 호조의 아들 비조부와 사통하여 문노를 낳았다.

37) 진골정통파의 종종은 진흥왕의 어머니인 지소태후이고, 대원신통파의 종종은 진흥왕의 정비인 사도왕후이다. 결국 진골정통파인 진흥왕은 대원신통파인 사도를 비로 맞이하여 3남4녀의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들 모두 대원신통파이다. 아들은 장남 동륜(銅輪)태자와 차남 금륜(金輪) 또는 사륜, 제25대 진지왕(진지왕의 어머니), 흥도를 낳았다. 여기서 진골정통파인 선혜가 묘심과 낳은 딸, 오도의 모계 후손들은 모두 대원신통파이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이어지는 여인들은 모두 대원신통파이다.

한편 대원신통파의 모계를 거슬러 올라가면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한 군데 나온다.

제21대 소지왕(비처왕)의 왕후는 진골정통파인 선혜이다. 그들 사이에서 보도가 태어났고, 보도는 제23대 법흥왕의 비가 되어 지소를 낳았다. 즉, 선혜와 보도와 지소는 진골정통파이다. 그런데 선혜에게는 또 다른 딸 오도가 있다. 오도의 아버지는 소지왕이 아니고 중승묘심이다. 삼국유사(기이제1 사금갑조)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실려 있다. 다만 왕후와 중이 사통하였기에 둘 모두 처형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화랑세기의 기록을 보면 중의 이름이 묘심이며, 왕후 선혜는 처형되지 않았다.

그들 사이에서 딸 오도가 태어났다. 오도는 1세 풍월주인 위화랑과 함께 딸 옥진과 금진을 낳았다. 옥진은 박영실과 결혼하여 딸 묘도(미실의 어머니), 사도(진흥왕의 정비, 제25대 진지왕의 어머니), 흥도를 낳았다. 여기서 진골정통파인 선혜가 묘심과 낳은 딸, 오도의 모계 후손들은 모두 대원신통파이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화랑도의 풍월주와 낭정(郎政)은 3파가 경쟁과 조화를 이루면서 차지하였다. 3파란 진골정통파와 대원신통파와 가야파를 말한다. 신라에는 왕비가 진골정통파와 대원신통파에서만 나올 수 있었고, 그들은 서로 왕비를 배출하기 위해 경쟁하였다. 진골정통파의 시조는 옥모부인인데, 제11대 조분왕의 어머니이자 소문국 왕녀이다. 진골정통파는 옥모를 조부모 하여 모계로 내려온 인통(仁統)이다. 아들은 한대에 한해 어머니의 인통을 물려받는다. 그래서 부자간에도 인통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다. 대원신통은 고구려 여인 보미를 조부모 하여 역시 모계로 이어진 인통인데 진골정통에 비해 남겨진 기록이 적어지지 못하다. 37) 이 또한 아들은 한대만 어머니의 인통을 따른다. 그리고 가야파는 물론 어머니가 가야인인 풍월주이지만, 김유신이나 김흠순과 같이 조상이 가야인인 경우도 가야파로 분류되기도 한다. 또한 김염장과 같이 가야파 낭두들의 부인이나 딸들을 다수 후처첩로 두어 가야파 낭두들에게 특혜를 베풀어 그들이 낭정(郎政)을 장악하고 있을 때의 풍월주도 가야파로 분류되기도 한다.

32명의 풍월주가 화랑도의 수장으로 화랑

우편배달부의 하루

올댓보스톤 교육컨설턴트
orugo4u@gmail.com

나는 우편배달부다. 아침 8시가 되기 직전 직원들은 모두 시계 앞에 줄을 선다. 시계의 숫자가 07:99에서 08:00으로 바뀌는 순간 출근카드를 긁는다. 1시간을 우체국에서는 100분으로 계산한다. 1분은 1.666...분이 된다. 원리를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렸다. 소위 60진법을 10진법으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 1마일이 1.666...킬로미터가 되는 것처럼.

다행히 우편물이 많지 않다. 가가 호호 배달해야 하는 관공서 우편물이나 상업광고물이 없으면 물량은 대폭 줄어든다. 구역은 대략 두 시간씩 나눠 총 6시간이 소요된다. 일진이 안 좋은 걸까. 첫 구역부터 째짢하다. 경찰차와 앰블런스가 서있고 사람들이 웅성거린다. 들것에 실려 앰블런스로 옮겨지는 사내가 얼핏 눈에 들어온다. 배달을 포기하고 나는 발걸음을 돌린다.

나는 콜롬비아 테라스를 나와 파인스트릿으로 향한다. 이름이 맘에 든다. 서울의 가로수길을 떠올리게 하는 이름. 파인스트릿에는 두안씨 부부가 산다. 날이 더워지면 두안씨 부부는 거의 매일 내게 물을 주신다. 우편물이 없어 지나치기라도 하면 어떻게 아는지 급하게 나를 따라나

와물을 주신다. 이 은퇴한 세무공무원이 나를 놀라게 한 것은 팬데믹이 터진 직후였다. 그 집 층계참에 앉아 잠깐씩 휴식을 취하곤 했었는데 팬데믹 이후 갑자기 시선이 차가워지는 것이었다. 집 앞에는 종이 상자를 두고 우편물을 거기에 넣게 했다. 출입문 중간에 달린 우편물 창구에 손이 닿는 것조차 두려웠던 것이다. 할 수 없이 내 휴식처는 층계참에서 길가의 우편함으로 바뀌었다. 릴레이 박스라 불리는 이 우체통에 트럭이 우편물을 넣어두면 배달부들은 여기서 우편물을 꺼내 배달을 한다. 지금은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갔다. 부부는 예전의 경계의 시선을 거두었고 종이상자는 사라졌으며 매일 내게 물을 건네주신다.

다음은 콜롬비아로드. 이 구역에는 여러 개의 교회들이 있다. 여호와 의 증인, 에티오피아 콥틱 교회, 제7 안식일 교회 등등. 비대칭적으로 큰 십자가들이 무자비하게 설치된 한국의 일부 교회들과는 달리 이곳 교회들에는 특별한 표시가 없다. 나도 우편물을 통해 그 정체를 알았을 뿐이다. 신은 정말 존재할까? 만일 신이 천지를 창조했다면 신은 존재할 수 없는 게 아닐까. 신이 천지를 창

조했다면 신은 천지 '바깥' 에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이 우주를 창조했다면 신은 우주 바깥에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그 '바깥' 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마치 내가 빵을 만들면 내가 빵 속에 있거나 빵이 내 안에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아머리 아파.

정오 무렵 나는 칸디푸르 카페에서 커피와 난으로 요기를 한다. 새참이 필요한 시간. 엄마는 인부들에게 새참으로 라면을 끓여주셨었다. 처음 본 삼양라면의 그 신기한 모습. 라면은 그 후 수십 년을 진화했지만 난 아직도 첫 라면이 그립다.

30분의 휴식을 마치고 나는 허버드스트리트으로 이동한다. <뉴욕>을 기다리는 크누드 부인네를 지나, 트리니다스 토바고에서 온 과군다 씨네를 지나, 아이티에서 온 간호사 바네사네를 지난다. 최근에 가정법원에서 온 우편물이 부쩍 많아졌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그리고 버지니아네. 그분과의 인연은 우연에서 시작되었다. 잘못된 주소를 추적해서 그분의 수표를 찾아 전해준 이후 그분은 내게 각별하게 대해주신다. 가족 이야기, 최근에 돌아가신 파트너 이야기 (남편이라 하지 않고



significant other란 용어를 쓰셨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운영하다가 문을 닫은 아일랜드 관련 사업 이야기 등. 나도 오래 전 아일랜드를 방문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공통 관심사가 생겼고, 그분은 잡지며 지도 등 온갖 것들을 내게 주신다. 은퇴 후 아일랜드 카페를 열어볼까.

오후 3시. 배달은 거의 끝났고 나는 시간을 조절한다. 너무 일찍 들어가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된다. 뷰티풀 피자에 들러 휴식을 취한다. 여기는 30여년을 근무한 베테랑 배달부 존의 아지트였다. 천천히 해라

, 휴식을 취해라, 사무실에 일찍 들어가지 마라, 그는 나를 볼 때마다 충고를 잊지 않았다. 어느 날부터 그는 안보였고, 소문에 의하면 그는 연방수사국에 마약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한다. 우체국에도 온갖 사람이 다있다. 나의 좋은 동료였던 디고는 자기네 나라로 돌아간 후 자동차 절도로 체포되었고 손은 우편물을 배달하지 않고 한곳에 처박아 두었다가 발각되어 해고되었다. 사람은, 아니 인생은 알 수 없다. 4시간에 퇴근카드를 긁는다, 똑같은 내일을 예상하며.

4월 10일 - 4월 16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쥐띠 전화위복의 상태로</p> <p>● 운수: 호랑이굴에 들어가더라도 정신만 차리면 신다는 말이 있듯이 위기가 오더라도 정신을 차리면 도리어 전화위복의 상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 금전: 너무 실리를 앞세우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니 융통성을 보여야겠습니다. ● 애정: 깨끗이 정리하지나 아직은 미련이 있고 계속해서 가자니 자꾸 신경 쓰이고 마음에 걸리니 고민이 깊어집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13, 16일 길일. 11, 14일 주의.</p>	<p>소띠 단단히 마무리 지어야</p> <p>● 운수: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확실하게 마무리 잘 지어야 합니다. 단단하게 매듭을 지어야 잘 끊어지지 않고 풀리지 않습니다. ● 금전: 급하게 하는 행동은 이익을 손해로 바꿔놓는 결과가 될 수 있으니 신중히 행동하도록 하세요. ● 애정: 굳게 마음먹고 결심을 했다가도 다시 흔들리게 됩니다. 생각이 많아지고 마음이 복잡해지기 쉽습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10, 14일 길일. 12, 15일 주의.</p>	<p>범띠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p> <p>● 운수: 실내에만 있기보다는 야외로 나가거나 활동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육체적인 건강은 물론이고 정신적인 건강에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 금전: 새로운 거래처가 생기거나 새로운 일이 들어옵니다. 차츰 수입이 늘어납니다. ● 애정: 처음에는 그리 좋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도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관계가 관철이 되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11, 15일 길일. 13, 16일 주의.</p>
<p>토끼띠 사랑의 힘은 위대</p> <p>● 운수: 지금 온 기회를 잘 활용해야 미래에 큰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연기를 거듭해오던 일도 차츰 해결될 것입니다. ● 금전: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가가 따라줄 것입니다. 평소보다 두 배의 수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애정: 사랑의 힘은 위대합니다. 무엇이든지 다 아름다워 보이고 그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12, 16일 길일. 11, 14일 주의.</p>	<p>용띠 앞에서 끌어주고</p> <p>● 운수: 가까운 곳에 있는 답을 두고 엉뚱한 곳에서 찾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주위부터 살펴보세요. ● 금전: 가능성은 있으니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부단한 노력을 지속하면 이익이 따릅니다. ● 애정: 혼자서 가려고 하지 마세요. 힘든 길일수록 돌이켜 함께 가는 이가 있어야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13, 14일 길일. 11, 15일 주의.</p>	<p>뱀띠 주어진 대로 만족하고</p> <p>● 운수: 지금은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이나 믿을 만한 사람과 충분히 의논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금전: 없으면 없는 대로 주어진 대로 만족하도록 하세요. 적게 가져서 마음이 더 가볍고 자유로울 수도 있습니다. ● 애정: 모든 것은 만남에서 출발합니다. 문제는 그 만남의 결과가 어디로 흘러가느냐입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11, 14일 길일. 13, 16일 주의.</p>
<p>말띠 맞는 방법을 잘 선택해서</p> <p>● 운수: 약간의 무리라도 탈이 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이라도 자신의 체력에 맞는 방법을 잘 선택해서 해야 합니다. ● 금전: 적은 돈은 들어오지만, 큰돈이 나갈 일이 생깁니다. 금전에 대한 스트레스가 생기기 쉽습니다. ● 애정: 헤어지는 것이 꼭 불행한 것만은 아닙니다. 서로가 맞지 않은 사람에게는 차라리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12, 15일 길일. 11, 14일 주의.</p>	<p>양띠 병 주고 약 주는</p> <p>● 운수: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세요. ● 금전: 문서와 관련된 모든 서류처리에 있어서 꼼꼼하게 잘 살펴야 합니다. 손해로 이어지는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애정: 병 주고 약 주는 격입니다.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가도 말 한마디에 다시 마음이 동하고 흔들립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11, 16일 길일. 13, 15일 주의.</p>	<p>원숭이띠 내 편을 들어주는</p> <p>● 운수: 이 세상에 내 편은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드러내고 보이지 않아도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가까이 있습니다. ● 금전: 거래에 있어서 유리할 때입니다. 싸게 산 것을 이윤을 남기고 비싸게 팔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를 놓지 않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소중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기회가 옵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14, 15일 길일. 13, 16일 주의.</p>
<p>닭띠 좋은 기회가 주어지는</p> <p>● 운수: 준비를 철저히 해둔 사람에게는 재앙도 비껴간다고 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하세요. ● 금전: 안정된 운세로 수입이 증가합니다. 금전적으로 좋은 기회가 주어지는 행운의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 애정: 따뜻한 말로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 큰 위안이 됩니다. 누가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이유 불문하고 상대의 의견을 존중해주도록 하세요. 93, 81, 69, 57, 45, 33년생은 10, 13일 길일. 11, 15일 주의.</p>	<p>개띠 사태파악을 제대로</p> <p>● 운수: 어려운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사태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너무 쉽게 생각했다가는 후회가 물려올 것입니다. ● 금전: 좋은 물건을 보면 사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것이 당면치사입니다. 과소비를 할 수 있으니 이에 소릴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애정: 순간적인 감정으로 마음의 있는 말을 다 했다가는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11, 13일 길일. 12, 14일 주의.</p>	<p>돼지띠 잠시 생각을 접어두도록</p> <p>● 운수: 지금은 잠시 생각을 접어두도록 하세요. 생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해결은 되지 않고 더 미궁에 빠집니다. ● 금전: 곳곳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당장 이익이 되고 호박이 넘칠때 굴러들어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 애정: 기본적인 경우와 예의를 지키세요. 다시 만날 일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과 만날 수 있습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12, 15일 길일. 10, 13일 주의.</p>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2/11
캐쉬어 및 가발판매를 도와 주실분입니다.
초보자 가능합니다.
Main Beauty Supply
Tel 508-799-0310, CP 508-524-2910 (Kenny Yoon)

12/17
셀폰 스토어 풀타임 파트타임 북키퍼 및 매니저 구함
hongkyonghui@hotmail.com

10/29
렉싱턴에 있는 차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실분 구합니다.
경험이 없으신분은 트레이닝 해드립니다.
T. 781-859-9218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생활서비스

광고 문의 617-254-4654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야차' 설경구 "확 끌리는 상업영화...감당 안 될 정도로 멋있어"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영화 '야차'는 동북아 각국의 정보 요원들이 모이는 중국 선양을 배경으로 한 첩보 액션물이다.

'야차'로 불리는 이강인(설경구 분)이 이끄는 국정원 비밀공작 전담 블랙팀의 보고서가 모두 가짜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좌천된 검사 한지훈(박해수)이 특별감찰관으로 파견된다. 한지훈은 블랙팀의 수상적인 행동을 의심하며 끈질기게 따라붙지만, 블랙팀은 개의치 않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공작을 이어간다.

이강인 역을 맡은 설경구는 5일 온라인으로 열린 제작 보고회에서 "근래 본 대본 중 가장 상업영화다웠다. 요새 중간 정도의 영화를 많이 하다 보니 상업적으로 확 다가왔다"고 밝혔다.

또 "대본이 워낙 재미있었다"며 "캐릭터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멋있어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았다. 땅에 발을 디딜 수 있게 톤을 좀 죽여 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야차'(夜叉)는 인도 신화와 불교에서 나오는 귀신 중 하나로, 사람을 잡아먹는 추악하고 잔인한 귀신이자 불법을 지키는 수호신이기도 하다.

설경구는 "지강인은 야차와 비슷하다"며 "무모하고 폭력적이고 가차 없지만, 정의

를 지키는 데는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설경구는 비밀공작 전담팀을 이끄는 베테랑 요원답게 총기와 맨몸 액션은 물론 일본어와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 능력을 선보인다.

설경구는 "불한당"은 액션이 많지도 않았고 액션 자체를 즐기는 액션이었다면, '야차'에서는 목숨을 건 진짜 액션이어서 좀 처절했다"고 전했다.

그는 "근래 한국 영화 중 가장 많은 총기류와 총알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무서웠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고 총 쏠 때마다 그 소리에 놀라 눈을 깜박거리려서 감독이 안 깜박거리는 얼굴을 찾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역도산'에서 선보였던 일본어에 더해 중국어까지 선보인 그는 "(외국어 연기는) 죽어라 외우고 연습하는 수밖에 없다"며 "일본어를 하다가 바로 중국어로 넘어가야 하는데 그게 안 돼서 애를 먹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설경구는 "제목은 '야차'지만 야차만의 영화가 아니라 블랙팀과 한 검사의 성장 영화라는 생각을 했다"며 "저 혼자 활약하는 영화가 아니라 공존하는 관계였기에 현장에서 팀워크도 좋았다"고 전했다.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한



나현 감독은 "야차 역이 제일 중요했고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설경구였다"며 "다른 배우들도 모두 캐릭터에 딱 맞는 옷을 입고 첩보 액션에 대한 의욕이 넘쳐서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영화의 주요 배경은 선양이지만, 중국 촬영이 불가능해 대만과 한국 곳곳에서 촬영을 진행하며 현지 분위기를 최대한 살렸다.

나 감독은 "첩보 액션이라고 하면 할리우드 전유물처

럼 여겨지는데, 전 세계 시청자들이 동북아에서 벌어지는 아시아판 첩보 액션물도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접해보시길 바란다"고 자신했다.

양동근, 이엘, 송재림, 박진영이 이강인 팀장과 함께 하는 블랙팀 요원으로 호흡을 맞췄다.

영화는 오는 8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된다.

mihee@yna.co.kr

술한 논란 딛고 4년 만에 컴백한 빅뱅...신곡 1위 '저력'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그룹 빅뱅이 약 4년 만에 발표한 신곡 '봄여름가을겨울'이 국내 최대 음원 사이트 멜론 '톱 100' 차트 1위를 차지하는 등 주요 차트를 휩쓸었다.

5일 가요계에 따르면 이 노래는 그간 강렬한 힙합 리듬을 선보여왔던 이들의 음악과 달리 따뜻한 밴드 사운드를 토대로 한 편안한 노래다.

도입부는 담백한 기타 리프로 시작해 뒤로 갈수록 감성적인 코드 진행이 심금을 울린다.

빅뱅은 이 노래에서 속절없이 피고지는 세상사의 순환을 계절의 흐름에 비유해 묘사했다. 인생을 반추하는 가사는 많은 음악 팬의 심금을 울렸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빅뱅은 오롯이 음악본질에 집중했다"며 "결가지를 쳐내고 진정성을 꺾고 눌러 담은 디지털 싱글로 음악 팬들과 더 깊은 교감을 시도했다"고 소개했다.

이 노래는 일반적으로 오후 6시 신곡을 발표하는 가요계 관행과 달리 이날 0시 공개됐음에도 음원 차트 1위를 달성했다.

빅뱅은 그동안 멤버 지드래곤과 탑의 대마초 흡연 등 구설이 끊이지 않았고 이에 이번 신곡 발표를 두고도 일부에서 곱지 않은 시각으로 컴백을 지켜봤다. 하지만 노래의 흥행 성공으로 빅뱅이 추후 활동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tsl@yna.co.kr

BIGBANG 봄여름가을겨울 (Brrrrr Like)

00:00:00

2022.04.05 0AM
DIGITAL SINGLE & M/V RELEASE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화려한 장례식

지난 4월 2일(토) 오후 3시 아주 특별한 장례식에 참석했다. 평생을 '어린이'처럼 살던 '보스턴 백조할매' 유정심 권사님이 지난 3월 25일 하나님 나라에 가신 것이다. 2년여간 암 투병을 하면서 날마다 삶의 노래를 풀어 SNS에 글과 그림으로 다른 건강한 이들에게 현실의 삶을 제대로 잘 살도록 큰 길잡이 역할을 해주셨다. 유 권사님의 언니(유영심 장로)와 친분이 더 있어 유 장로님이 플로리다로 이사하신 후 보스턴에 오시면 가끔 뵙고 이야기를 나누곤 한다. 이번에도 동생이 아파 한참을 보스턴에 머물러 계셨었다.

지금도 눈에 선한 것은 지난 5월 5일이 유정심 권사님의 칠순 잔치를 했었다. 동네 어른들이 함께 찾아가 축하를 하며 아픈 친구를, 동생을, 언니를 안아주며 위로하고 위로받고 왔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지금 생각하니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 다시금 생각나게 한다. 집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예사롭지 않은 집안 분위기는 모두를 환한 웃음으로 반기게 한다. 철 따라 바뀌는 페넬리움 화려

한 커튼과 아기자기한 소품들 그 중에는 손수 본인이 리폼해 만들어 놓은 작품들도 몇 있다.

재주가 많으신 유 권사님은 몇 년 전에는 보스턴라이프스토리에 '삶의 이야기'를 기고하며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또한, 그림은 어찌 그리도 잘 그리는지 보스턴 지역 어른들 모임 카톡방에 삶의 이야기와 그림을 올리며 많은 이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선사하고 있다. 어디 그뿐일까. 대장암을 마주한 환자로서 많이 힘겨움으로 있을 텐데도 매일 '병상 일기'를 올리고 있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희망을 주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곳곳하고 의연하게 병과 마주하며 이겨내는 모습에 참으로 감사하다.

참으로 놀라웠다. 아무리 신앙과 믿음이 있다고 해도 누구나 '죽음' 앞에서는 두려운 일이 아니던가. 병과 마주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곁의 사람들에게 나누고 증거하며 우리의 곁을 떠났다. 지금까지 봐왔던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본 일이

없었다. 유 권사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신 후 더욱 그 마음이 귀하게 여겨졌다. 바로 이것이 '참 신앙'이라고 '참 믿음'이라고 말이다. 사람은 진정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 사람의 깊은 마음과 태도를 보며 삶의 참 진실을 알게된다.

'아름다운 슬픔'이란 표현이 어울리는 장례식이었다. 유 권사님의 평생 화려한 옷과 모자, 맛깔스러운 유머는 곁의 모든 이들에게 상큼한 비타민이었다. 때로는 그 밝음이 지나쳐 주책스럽게까지 보여지는 그런 분이였다. 그러나 언제나 변함없는 웃음과 화려함으로 삶에 지친 이들을 웃음 짓게 만든 장본이기도 하다. 늘 남편 자랑을 빼놓지 않았던 분이요. 칠순이 다 된 부부의 이야기를 듣노라면 팔순 어른의 언니들이나 오륙십에 있는 동생들이나 옆에서들 까르르 웃음이 한가득 흘러넘치곤 했었다.

장례식이 있기 며칠 전 아는 지인으로 부터 얘기를 들었다. 이번 유정심 권사님의 장례식에는 가깝게 지내던 지인들은 검은색은 사양하고 화려한 차림으로 와달

라는 것이었다. 유 권사님이 그렇게 원하셨다는 것이다. 보통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렇게 화려하시더니 정말 떠나는 날에도 화려하게 가시려는 모양이라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나누었다. 장례식이 있기 전날 아는 언니한테 전화를 걸어 확인을 했다. 정말 화려한 옷차림으로 가도 되는 거냐고 말이다. 물론이라는 대답을 듣고 그래 아주 특별한 '화려한 장례식'이구나 싶었다.

'화려한 장례식' 이었다. 장례식 날에 이렇게 화려한 색상의 옷을 입어보지 못했던 터라 뭔가 어색한 느낌이었다. 그러나 장례식장에 도착한 나는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여러 지인들이 화려한 차림으로 머리 위에는 화려한 모자까지 쓰고 있었다. 모자를 설명하자면, 유정심 권사님이 평소에 쓰시던 '화려한 모자'를 테이블에 20~30개 가져다 놓았던 것이다. 그곳에서 하나씩 마음에 드는 것을 찾아 쓰고 장례식에 참석했던 것이다. 나는 핑크 원피스에 검은 재킷을 입었는데, 때마침 핑크 모자가 있어 쓰고 장례식에 참석했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구설수



김화욱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왜 아니라. 지난 한국 대통령선거때였다. 고위인사가 한 말이란다. 참모들의 말실수를 경계했고 단단히 주의를 줬다던가. “구설수에 오를 과도한 언행에 주의하라”. 요새도 있던가. 점괘를 봐주던 노인들 말이다. 무척 추위 보였는데, 육교위에서 좌판을 벌이고 있었다. 선날이나 새해 정초쯤이면 자주 목격했더랬다. 노인들은 운세를 봐준다 했고 구설수도 점칠 수있었을 게다. 시 한편이다.

별들은 우리의 오랜 감정속에서 소모되었다. 점성술이 없는 밤하늘 아래 낡은 연인들은 매일 조금씩 헤어지고

(이장욱, 점성술이 없는 밤)

점성술인가 타로점인지 토정비결인가. 구별이 쉽지는 않다. 별과 같이 한다지만 뭔가 고리타분해 보인다.

구설수 뿐이라. 요행수도 있고, 손재수란 말도 있다. 요행수는 뜻밖에 얻는 좋은 운수이고, 손재수는 재물을 잃을 운수라 했다. 손재수는 모르겠다만, 요행수를 나는 믿지 않는다. 길지도 짧지도 않은 인생살다 보니 그런건 있을리 없다 여기는 거다. 설사 있었다 해도 요리조리 피해 가지 않았나 싶다.

한국에선 곧 새대통령이 취임할게다. 부디 구설수에 오르지 마시라.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라 (시편 31:20)

토정비결土亭秘訣. 이지함 선생이 지은 책이다. 운세를 점치는 이들이 즐겨 들추는 책일 게다. 나야이 책을 읽은 적은 없다. (읽는다 해도 무슨 말인지 알수 없을 터.) 책에는 구설수口舌數라는 낱말도 나온다 들었다. 구설이란 입방아에 오르내리다 라는 말로 쉽게 해석할 수있겠다.

이어령선생의 책에서도 나온다. ‘이달에는 구설수가 있으니 입을 병처럼 지켜라!’ ‘비록 재수는 있으나 구설을 조심하라!’ 사소한 일로 구설이 분분하다.’ 모두 말조심 하라는 당부일 게다. 옛말도 있다. 말로써 말 많으니 말 말을까 하노라. 하늘엔 총총 별도 많고 우리네 세상엔 말도 많다.

국제결혼가정선교회, 연례 모금 만찬 파티에 초대합니다.



Fundraising Dinner & Dance
Hosted by Boston Chapter

Date : May 28, 2022 (Saturday) Time : 6 PM
The UMass Lowell Inn & Conference Center
50 Warren St. Lowell, MA 01852

Ticket : \$100.00 PER PERSON
Contact: 781.248.5546 978.828.1383

“ 평화의 땅, 평화의 집 쉼터 구축과 2세 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

Sharing peace. Sharing God's blessing.
평화와 하나님의 축복을 나눕니다..



국제결혼가정선교 전국연합회 BOSTON CHAPTER
National Association of Inter-Cultural Family Mission www.naicfm.org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H+양지병원>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갑상선 유두암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영화배우 박소담을 괴롭힌 “갑상선 유두암”에 대해 휴람 의료네트워크 H+양지병원 유방갑상선외과 박요한과장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영화 기생충의 주역 배우였던 박소담(30)이 갑상선 유두암 수술을 받았다고 마스크를 통해 들었을 것이다. 박소담의 소속사는 “박소담이 정기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유두암 진단을 받고 의료진 소견에 따라 수술을 마쳤다.”고 밝혔다.

박소담이 걸린 유두암은 갑상선암 중 80~90%를 차지할 만큼 흔한 암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 갑상선암은 증상이 없거나 모르고 지나다 우연히 검진단계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박소담 역시 건강검진 과정에서 암이 발견된 사례이다.

갑상선은 목 앞쪽 중앙 부위에 위치한 나

비모양의 내분비 기관으로 체온유지, 신체 대사 균형 유지 역할을 담당하며 혈중 칼슘 수치를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갑상선 관련 질환 중 갑상선에 혹이 발생하는 갑상선 결절은 크게 양성과 악성으로 구분되며 결절의 5~10%는 갑상선암으로 진단된다. 특히 갑상선암은 95%가 박소담의 사례처럼 갑상선 유두암으로 진단된다. 갑상선 유두암은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암종이 유두 모양과 비슷해 붙여진 이름인데, 유두상 갑상선암 또는 유두상암이라고도 한다. 유두암은 갑상선암 중 예후가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조기발견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앙암등록본부 2020년 자료에 의하면 2018년 국내에서 발생한 243,837건의 암 발생 건수 중 갑상선암이 남녀 합쳐 28,651건으로 전체 암 발생의 11.8%로 2위를 차지했다. 성별 발생 건수는 남성 6,727건, 여성 21,924건으로 여성 발생 건수가 3배 이상 높다. 남녀 합쳐 연령대별로 보면 40대가 27%로 가장

높고, 50대는 25%, 30대 21.2% 순이다.

침을 삼켰을 때 이물감과 불편함을 느끼거나 갑자기 목소리가 변하는 증상이 있다면 갑상선암을 의심할 수 있다. 갑상선암은 근본적으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데 예후가 좋아 수술 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는다면 거의 완치가 가능하다.

갑상선암은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통해 크기와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세포학적으로 암세포를 확인하는 미세침흡인세포 검사는 갑상선 유두암 진단에 필수적이다. CT 검사는 갑상선암이 주위 조직으로 퍼진 정도와 림프절 전이 유무, 해부학적 혈관변이 여부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한편, 혈액검사로 수술 전 갑상선 기능(항진 또는 저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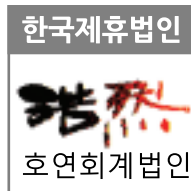
갑상선유두암 등 관련 질환은 확실한 예방수칙과 기준은 아직 없다. 일부는 유전적으로 발병하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 갑상선암 수술 전후금하거나 권장되는 식품은 없지만 방사

선 요오드 치료가 예정된 경우라면 치료 전 2주 동안 미역 등 요오드 함유 식품을 제한하기도 한다.

“갑상선 유두암”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목디스크 · 허리디스크 및 각종 통증에 확실한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누우면 몸의 곡선에 따라 편안하게 바쳐주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서서히 스트레칭시켜 줍니다”

항균 위생 통풍 통기

ACA AMERICAN CHIROPRACTIC ASSOCIATION
척추 전문 의료진이 개발하여 잠자면서 스트레칭 되는 기능으로 목과 허리통증 치료에 탁월한 효과!
미국 카이로 프랙터 협회에 인증받은 유일한 매트리스!

60년 전통의 이태리 명품 침대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 컬렉션

<p>DOLCE VITA COLLECTION COMFORT DUAL 10 FIRM</p>  <p>LEVEL OF COMFORT: FIRM / EXTRA FIRM COVER: OUTLAST® / VISCOSE WARRANTY: 20 YEARS CERTIFICATIONS: OEKO-TEX® / MADE IN ITALY</p>	<p>SUPREMO COLLECTION DIAMANTE DUAL 14</p>  <p>LEVEL OF COMFORT: MEDIUM SOFT / SUPER SOFT COVER: OUTLAST® / VISCOSE WARRANTY: 20 YEARS CERTIFICATIONS: OEKO-TEX® / MADE IN ITALY</p>	<p>MAGNISTRETCH 12</p>  <p>LEVEL OF COMFORT: MEDIUM SOFT COVER: OUTLAST® / VISCOSE WARRANTY: 20 YEARS CERTIFICATIONS: OEKO-TEX® / MADE IN ITALY</p>	<p>Reverie O300T Adjustable Base</p> 
---	--	---	---

100% Made in Italy

20 Years Limited Manufacturer Warranty

10 International Certifications

60 years of History

FUJI FJ 8500

SPECIAL SPRING OFFER
FJ 8500 일시를 구입시 스텝팅 김치냉장고 무료증정
-기간: 2022년 4월 8일(금)부터 - 4월 25일(수)

후지 안마의자가 강력한 첨단 기능으로 다시 정상에 우뚝 섰습니다!

- ◆ 타명품 안마의자 장점만을 골라 만든 최상급 안마의자
- ◆ 프로 안마사 손길에 가장 근접한 마사지 체어!
- ◆ 몸속 깊숙이 침투! 빈틈없고 확실한 마사지 효과!
- ◆ 최첨단 기술과 정밀 부품 사용으로 소음이 적어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고장율이 낮음!
- ◆ 거북목 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기능 탑재
- ◆ 탄소섬유 발열체 장착으로 원격외선 온열 테라피 기능
- ◆ 발바닥에서부터 무릎위까지 최대 구간 안마기능



SPECIAL PRICE
\$150
월/60개월
할부 구입시 NO DEPOSIT

EVERYCARE EC 7300

SPECIAL SPRING OFFER
EC7300 일시를 구입시 180리터 김치냉장고 무료증정
-기간: 2022년 4월 8일(금)부터 - 4월 25일(수)

더욱 고급스러운 디자인 인체 리듬에 맞춘 마사지 기능!

- ◆ 따뜻한 온열 테라피 기능으로 전신 안마효과!
- ◆ 거북목 교정 및 체형 교정에 효과적인 프로그램 탑재
- ◆ 24가지 자동 프로그램
- ◆ 터치스크린으로 사용하기 편리함
- ◆ 고급 부품 사용으로 소음이 거의 없고 고장율이 낮음
- ◆ 발바닥, 뒤통지, 종아리, 무릎위까지 온열과 최고급 발 마사지 기능



SPECIAL PRICE
\$99
월/60개월
할부 구입시 NO DEPOSIT

EVERYCARE PKH 107

더욱 고급스럽고 세련된 디자인! 커피 한잔의 가격으로 고급 안마의자를 구입하세요!

- ◆ 3D 메카니즘을 이용한 지친다리를 위한 특화기능
- ◆ 9가지 자동 프로그램
- ◆ 손으로 누르는 듯한 마사지 볼
- ◆ 신체부위별 자동 프로그램



SPECIAL PRICE
\$68
월/60개월
할부 구입시 NO DEPOSIT

HITRONS™
LEXINGTON, MA

1666 Massachusetts Ave.
Lexington, MA 02420
781.862.6867 / www.hitrons.com



* 월부이자 특별스페셜은 Synchrony Financial 회사의 규정에 따라 신용확인이 필요하며 Synchrony Financial 적격고객에게만 제공됩니다. 모든 고객이 자격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조정된 상품 가격 (5월 1일부터. 무료영화는 6월부터 편당 1불로 변경)

*전상품 1년 약정

Plus 상품

KBS, MBC, SBS, EBS, YOUTUBE

\$24.99

Premium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중편, YOUTUBE

\$34.99

VIP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중편, 영화/성인, YOUTUBE

\$39.99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연합뉴스TV MBN JTBC / JTBC골프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장례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섭 뉴햄프셔한인회 전 고문께서 3월 22일 소천하셨습니다.
고 김섭 고문의 장례식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유가족 한윤경 권사
장녀: Kathy Kim
차녀: Karen Kim 사위 Sam Choi
장남: 김모세 집사 :자부 : 이인옥
손녀: Sara, Irene

고인 약력
1942년 12월 4일 서울 출생
양정고교 졸업 중앙대 졸업
군중대장 전역
1971년 6월 26일 결혼
슬하에 1남 2녀 6손녀
2022년 3월 22일 별세



HOME RENOVATION
NAMU

나무

- 국제기능올림픽 목재분야금메달리스트
- 대통령 훈장 수훈
- 15년 이상의 경력



WHY NAMU



정직하고
디테일한 견적



고객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진행



체계적 관리를 통한
계약 기한 내 완공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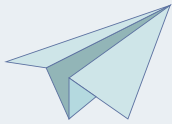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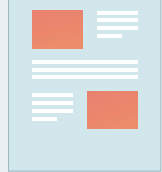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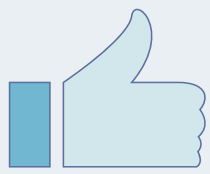
- ☑ 하우스 레노베이션
- ☑ 커스텀 캐비닛, 데스크
- ☑ 원목 테이블, 가구

견적부터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고 양심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무료
견적
상담

🌐 www.namuma.com
 ✉ info@namuma.com
 ☎ 617-775-4771
 📍 58 Pulaski st, Peabody, MA 01960
 📷 @namu_finewood

INSTAGRAM



보스톤코리아

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 BostonKorea.com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기사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 보스톤코리아닷컴을 스마트폰에 즐겨찾기로 저장해 주세요.
- 보스톤코리아닷컴을 데스크탑에 북마크로 저장해 주세요

보스톤코리아